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글_김정현 그림_전만성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글_김정헌 그림_전만성



홍성문화원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을 펴내며

우리고장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에 ‘함흥 기생 만향 열녀 묘’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흥기생의 묘가 무슨 연유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또한 무슨 연유로 열녀묘 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조선시대 우리고장 출신인 황 흠이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대략 1년 정도 함흥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책방도령으로 따라간 아들 황규하와 함흥기생 만향이 사랑하는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황 흠 관찰사가 한양 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두 연인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흥에 홀로 떨어진 기생 만향은 어렵게 수년 동안 정절을 지킵니다.

10여년 세월이 흐른 뒤에 기생 만향은 한양으로 황규하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황규하는 이곳 홍동으로 낙향한 뒤였습니다. 만향은 한양에서 다시 이곳으로 황규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규하는 저세상 사람이 된 후였습니다. 기생 만향은 황규하의 산소 앞에서 시묘살이를 하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만향은 황규하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대략 이런 연유로 함흥기생 만향의 무덤이 이곳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함흥기생 만향의 행적은 우리나라 고소설인 춘향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춘향전과는 대조적으로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우리고장의 동화작가 김정현 선생님께서 옛자료와 홍동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만향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었습니다. 더욱이 홍동에는 그동안 묘의 주인공이 '평양기생 난향'으로 잘못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각종 옛 자료를 찾아내어 주인공의 이름이 '함흥기생 만향'이라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고장의 또다른 훌륭한 인물을 재조명한 역작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함흥기생 만향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선보이길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수고하신 동화작가 김정현 선생님과 좋은 그림을 그려주신 전만성 화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일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 책을 펴내면서

홍성문화원장 유환동

1장 봄비가 맺어준 인연

- 10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
- 12 책방도령
- 15 가죽신발
- 18 칼춤 추는 여인
- 22 꿈 속 같은 인연
- 24 기생들의 전설

2장 거미줄처럼 시작된 사랑

- 32 성천강 해후
- 44 그리움은 깊어가고
- 47 관찰사 순력 행차
- 52 성천강 달빛 아래에서
- 59 연리지 같은 사랑 약속

3장 이별과 수절의 고통

- 70 이별 소식
- 82 기생들이 겪는 배신의 고통
- 90 기생들이 겪는 수절의 고통
- 94 만향을 옥죄어 오는 수청 요구
- 101 함흥 민가를 휩쓴 큰 불
- 106 황도령의 과거급제 소식
- 111 투신 소동과 함흥 탈출

4장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

- 118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 120 남장하고 찾아온 여인
- 123 함흥기생 만향
- 125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
- 127 황도령의 벼슬살이
- 131 황도령의 낙향과 사망
- 137 시모살이
- 141 마을사람
- 148 검은 그림자들
- 157 황도령을 따라간 만향

5장 또다시 이별

- 164 무지개말랭이
- 168 사랑의 수호신이 된 만향
- 171 후인의 기도

후기(後記)

- 176 황 흙은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했다
- 179 조선해어화사에 기록된 '함흥기생 만향'
- 181 여지도서에 기록된 '함흥기생 만향'
- 182 조선해어화사의 기록과 묘비 내용의 차이

* 참고문헌



1장

봄비가 맺어준 인연

1장 봄비가 맺어준 인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

조선시대 기생은 신분상으로 천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풍류를 알고 학문적 교양이 높은 상류층 인사들이었다. 기생들이 상류층 인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학식도 있어야 했고 문장이나 예의범절에도 능해야 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각종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했다.

조선시대 기생들을 ‘해어화(解語花)’라고 불렀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노류장화(路柳牆花)’라고 했다.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가지와 담장 밑의 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 중에는 그들의 정조를 아무나 쉽게 꺾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들이 비록 신분은 천민이었지만, 생각과 행실은 사대부 여인들을 뛰어넘는 기생들이 많았다.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 상대방을 만나면, 평생 동안 정조를 목숨처럼 지키며 온몸을 불사른 기생들이 한둘이 아니다.

때는 1702년 4월이었다.

북쪽지역 함흥의 4월은 겨울과 봄의 어중간한 계절이다. 맹렬하던 겨울기운은 아직도 자리를 비켜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어찌다

한번 씩 씹아 불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이 잔뜩 섞여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정한 자연의 섭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지난겨울 뿔속까지 파고들던 뽕뽕하던 칼바람은 힘이 많이 빠져있었다. 이제는 살갓을 스치는 바람이 그런대로 참을 만 했다. 봄기운이 느껴지는 따스한 바람이었다.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듯, 함경도 함흥감영에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환갑과 진갑을 넘긴 나이 지긋한 신임 관찰사가 부임한 것이다. 신임 관찰사 이름은 충남 홍성 출신 황 흠이었다.

함흥 감영 주변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감영 주변은 구경꾼들로 들쭉들쭉 했다. 신임 관찰사의 부임 환영연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었다.

성천강이 옆으로 흐르는 함흥성은 저녁 무렵이 되면서 비가 조금 왔다. 그 바람에 땅이 젖고 길 걷는 사람들은 애를 많이 먹고 있었다.

함흥 객사 함산관 주변으로 몰려드는 인파들 중에는, 신임관찰사의 환영연에 가무를 맡은 기생들도 섞여 있었다. 녹의홍상을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은 땅바닥까지 끌리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비 젖은 흙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고역이었다. 거기에서 가무에 사용할 기구까지 양손에 들고 걷는 기생들은 옆친 데 뺏친 격이었다. 신발에 진흙처럼 달라붙는 흙을 떼어내랴, 땅바닥까지 끌리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랴, 거기에서 무거운 악기까지 들쳐 메랴…….

누군가 나서서 짐이라도 들어주면 좋으련만, 사람들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흘끗 한번 훑어보며 지나갈 뿐이었다.

책방도령

구름때 같은 인파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기생 한 명이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환영연에 출연할 기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기생은 옷차림부터 눈에 띄었다. 강렬한 붉은색 치마와 자주색 패자를 걸쳐 입고 알록달록한 깃털로 장식된 모자까지 머리에 비껴쓰고 있었다. 양손에는 춤을 추기 위해 필요한 공연용 칼까지 들고 있었다. 아마도 검무에 출연할 기생인 듯했다.

이 기생은 한두 발짝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아예 더 이상 걸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발뺌을 내려다보며 신발을 벗어보고 신어보며 고통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길은 비에 젖어서 걸음을 방해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진퇴양난인 듯했다.

환영연에 출연할 기생들은 미리미리 도착하여 예행연습도 해야 했고, 이것저것 챙겨둘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행사장에 늦게 도착한다면, 그다음에 일어날 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행수 기생의 꾸중과 담당관원의 불벼락 같은 호통이 날아들 것이다.

그 정도로 끝이라면 천만 다행일 것이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 닥쳐올 불이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소한 곤장 몇 대는 각오해야 할 판이다.

때마침 기생이 서있는 자리는, 함흥성 서문 정자에서 뻗히 내려다 보였다. 함흥성 정자에 올라가 성천강과 주변 경치를 구경하던 황도령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애, 방자야. 저기 저 여인은 차림새를 보아하니 기생인 듯하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아주 다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로구나.”

황도령이 성벽 아래 기생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마도 빗길에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듯하옵니다.”

방자가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아닌 것 같구나. 아주 다급한 일이 생긴 듯하구나. 어서 빨리 달려가서 알아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방자가 재빨리 기생을 향해 달려갔다. 방자가 기생과 마주서서 뭔가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방자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다시 정자 쪽으로 올라왔다.

“오늘 환영연에 가무를 선보일 만향이라는 기녀입니다.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 생겨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다급한데 길은 험하고 거기에다 신고 있는 신발까지 진흙에 빠져서 찢어지는 바람에 걸음을 걷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방자가 허리를 굽히고 대답했다.

“어허, 그거 아주 낭패로구나. 지금 당장 이 신발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짐까지 행사장에 옮겨주고 오거라.”

젊은 황도령은 신고 있던 가죽신발을 벗어주며 방자 앞으로 밀어 놓았다. 방자를 바라보는 황도령의 눈빛은 빨리빨리 서둘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네에? 도련님의 가죽신발을 저 기생한테 갖다 주라는 말씀이옵니까?”

방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어서 빨리 서두르라고 하잖느냐? 지금 저 기생은 얼마나 속을 태우겠느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사옵니까? 천하고 천한 기생에게 양반 도련님의 가죽신발을 신겨주라는 말씀이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양반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옵니다.”

방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허, 그거, 참으로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사람이 곤경에 빠졌는데 양반 상놈 가려서 도와주란 말이나? 냉큼 다녀 오거라.”

황도령이 엄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방자가 마지못해 벗어놓은 가죽신발을 집어 들었다.

“어서 빨리 서둘러라.”

황도령이 재차 명령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방자가 신발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엉거주춤 정자 마루를 내려갔다.

방자에게 가죽신발을 들려 보낸 황도령은, 신임관찰사 황 흠의 아들이었다. 황 흠의 다섯 아들 중에서 막내인 황규하는. 책방도령

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며칠 전에 함흥에 함께 온 것이다.

당시의 풍속에는 지방관이 부임할 때 부인은 동행하지 않고 미혼의 공부하는 조카나 아들이 함께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관아의 책실이나 독립된 방에서 기거하며 함께 생활했다. 이들을 책방도령이라고 부른다. 춘향전 속에서 춘향이와 인연을 맺었던 이몽룡이 대표적인 책방도령이다.

가죽신발

“참으로 세상을 오래 살고 불일이구면, 세상 어느 양반 자제가 자기 신발을 기생에게 선뜻 벗어준단 말인가? 낯선 기생을 저렇게 알뜰살뜰 챙겨주는 양반은 처음 보네 그려.”

방자는 관아의 잔심부름을 해오며 수많은 양반 관리들을 접해왔다. 노비나 기생들을 관아에 팔린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양반들 아니었던가. 아랫것들의 인격을 양반들 발톱 밑에 끼어있는 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였다.

방자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에 어안이 병병했다. 망치로 뒷머리를 한 대 땅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방자가 내미는 가죽신발을 바라보는 기생 만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건 어디서 난 가죽신발이야?”

만향은 가죽신발과 방자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토끼눈처럼

럼 맑은 두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황도령님의 심부름만 할 뿐이야. 어서 빨리 가죽신발로 바꿔 신어. 그 짐은 나한테 주고…….”

방자는 만향의 손에 들려있는 공연용 칼과 짐을 뺏다시피 받아들였다.

“황도령님이라니……?”

만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재차 물었다.

“신임 관찰사 영감님을 따라온 책방도령님 말이야.”

방자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뭐어……?”

만향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잠깐동안 정신 나간 표정으로 서있었다. 방자는 벌써 저만큼 앞서서 경중경중 걸어가고 있었다.

만향은 시간이 늦었으므로 더 이상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볼 형편이 아니었다. 우선 급한대로 방자가 내민 가죽신발을 신었다.

만향의 발은 가죽신발 속으로 거칠 것도 없이 쑥 들어갔다. 신발이 커서 걷기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찢어진 신발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했다.

함흥 객사 함산관 앞마당 연회장에 도착한 만향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행사에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가죽신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방자가 들고 온 짐을 돌려받으며 다시 물었다.

“방자야, 내가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가죽신발을 신고 왔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이 얼떨떨하지 뭐냐? 이 신발 주인이 관찰사 영감을 따라온 책방도령님이란 말이나?”

“그렇다니까…….”

방자가 발길을 돌리며 대답했다.

“아니, 지체 높은 가문의 아드님이, 나처럼 천한 기생에게 가죽신발을 보냈단 말이나? 나를 어디서 발견하시고 그런 마음을 쓰셨단 말이나?”

만향은 돌아서는 방자의 옷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끌며 물었다.

“내가 빗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먼발치로 보셨어. 더 이상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묻지 말라고. 좌우지간 나도 얼떨떨하단 말이야. 저런 양반은 처음 본다니까.”

방자는 뒤도 안돌아보고 뛰어갔다.

만향은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모양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데도, 두근두근 쿵쿵쿵 방망이질 하듯 심장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왔다.

만향은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다른 기생들이 눈치 챌 것만 같아 몹시 조심스러웠다. 가죽신발을 벗어 젖은 흙을 떼어내고 조심조심 짐 속에 넣어두는 두 손이 떨려 애를 먹었다.

칼춤 추는 여인

함산관 주변은 날이 저물며 햇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다.

함산관 앞 넓은 마당에는 기생들이 도열해 있었다. 악기들을 연주할 악사들이 앞줄에 배치되어 앉았고, 각종 춤을 출 기생들이 뒤쪽으로 줄지어 앉았다. 함산관 마당 주변으로는 호위사령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면서 연회에 초대된 함흥 인근의 사대부들이 떠들썩하게 함산관 마루 위로 올라갔다. 맨 마지막으로 신임 관찰사가 안내를 받으며 중앙 높은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았다.

“풍악을 울려라!”

행사진행 관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외쳤다. 그와 동시에 웅장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피리·대금·해금·북·징·바라·운라·나발·태평소 등의 연주소리가 함흥감영을 뒤덮었다.

환영연회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생들의 춤과 노래였다. 음악과 함께 교방기생들의 가무가 시작되었다. 맨 먼저 행사의 문을 여는 초무가 시작되었다. 색색의 치마저고리를 입은 기생 두 명이 무대를 한 바퀴 돌며 간단한 춤을 선보였다.

이어서 학춤을 선보였다.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로 변장한 학 두 마리가 무대 위로 올랐다. 햇불로 조명을 받은 두 마리 학은 날개를 펼치며 우아한 자세로 춤을 추었다. 다음에는 황색과 청색 사자가 등장하여 사자무를 추었다. 그리고 처용무가 뒤를 이었다.

다음은 검무 차례가 되었다.



검무는 만향이 출연하는 춤이었다. 만향은 다른 기생들과 한 팀이 되어 무대 앞으로 나갔다. 어디션가 황도령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수없이 양반들의 연희장에 불러 다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설레고 쿵쿵 뛰는 것은 처음이었다.

기생들 네 명이 음악에 맞춰 검무를 추기 시작했다. 여인들 네 명이 옷자락을 멋들어지게 날리며 공연장 중앙을 빙글빙글 돌았다. 양손에 들고 있는 쌍검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허공을 휘젓는 모습

이 일품이었다. 붉은색의 강렬한 한복을 입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쌍칼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네 명의 기녀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마다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일찍이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은, 기녀들의 검무를 구경하며 몹시 반한 적이 있었다. 그는 검무를 감상하고 나서, ‘무검편중미인(舞劍篇贈美人·칼춤 시를 지어 미인에게 주다)’라는 시를 그녀들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다.

정약용은 기녀들의 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푸른 뱀이 백번이나 가슴을 휘감는 듯하다’고 했다. 칼을 이리저리 휘둘러도 서로 칼 끝이 닿지 않고 치고 찌르고 뛰고 구르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기녀들의 검무 추는 모습이 마치 ‘회오리바람과 소나기가 겨울 산에 가득한 듯하고, 붉은 번개와 푸른 서리가 빈 골짜지에서 다투는 듯하며, 놀란 기리기처럼 멀리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듯싶다가도, 성난 매처럼 감돌아 노려보다가 쨍그렁 칼 던지고 날듯이 돌아온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애를 태웠을까?’라고 말하며, 검무에 반한 자신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정약용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검무를 감상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녀들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함경도 관찰사 환영연에서도, 만향과 기녀들의 검무를 구경한 구경꾼들은, 정약용처럼 그

녀들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었다.

환영연의 마지막 순서는 함흥기생들의 ‘출사표’ 외우기였다. 함흥기생들의 제일 장기인 출사표가 좌중을 압도했다.

출사표란,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며 임금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공격하러 떠나면서, 황제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전쟁에 나가는 각오를 글로 바친 것에서 유래한다.

기생들도 각 지방마다 장기와 특색이 있었다. 안동기생은 ‘대학지도’를 잘 외우고, 관동기생은 ‘관동별곡’을 잘 읊었다. 함흥기생은 ‘출사표’를 잘 외우고, 영흥기생은 ‘용비어천가’를 잘 외웠다. 제주기생들은 말달리는 재주가 뛰어났고, 의주기생은 말을 달리며 검무를 잘 추는 것으로 유명했다.

함흥은 변경지역이어서 행사 때마다 기생들이 출사표를 외웠다. 출사표는 국경지대의 긴장된 분위기를 추스르며 백배 천배의 용기가 샘솟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出師表(출사표)

先帝創業未半(선제창업미반) 而中道崩(이중도붕) 今天下三分(금천하삼분) 益州罷弊(익주파폐) 此誠危急存亡之秋也(차성위급존망지추야)
然侍衛之臣(연시위지신) 不懈於內(불해어내) 忠志之士(충지지사) 忘身於外者(망신어외자) 蓋追先帝之殊遇(개추선제지수우) 欲報之於陛下也(욕보지어폐하야) 誠宜開張聖聽(성의개장성청) 以光先帝遺德(이광선제유덕) -하락-

선제께서 왕업의 뜻을 아직 반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는데, 우리 익주는 참으로 피폐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측근에서 모시고 지키는 신하들이 게으르지 않고, 밖에서 충성을 다하는 장수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은, 선제의 각별하고 두터웠던 대우를 가슴에 새겨서, 이를 폐하께 보답하고자 함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실로 총명한 귀를 넓게 여시어, 선제께서 남기신 덕을 더욱 빛내시며, -하락-

함흥 기생들의 출사표가 주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환영연이 마무리 되고 있었다.

만향은 환영연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가죽신발 생각으로 보냈다. 검무를 추며 틀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기생들과 합창으로 출사표를 외울 때는 중간중간 틀린 곳도 많았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니 외우고 있던 내용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기생들의 목소리에 섞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꿈 속 같은 인연

만향은 환영연회가 끝나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맨발로 걸어왔다.

“애야, 신발을 어떻게 하고 맨발이냐? 아이고 이 꼴 좀 보게나!”

집안으로 들어서는 만향을 보며 초선언니가 깜짝 놀랐다. 만향

은 초선언니의 걱정을 한귀로 흘려들었다. 자신의 흠발을 씻는둥 마는둥 서둘러 닦아냈다. 그리고는 짐 속에서 가죽신발을 조심조심 꺼내들었다.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가죽신발을 물에 빨기 시작했다.

“애야, 그 가죽신발은 뭐냐?”

초선언니가 만향이 들고 있는 가죽신발을 보며 물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통 사람이 신는 신발은 아니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고 또 물었다. 만향은 듣는둥 마는둥 온 신경을 가죽신발에만 쏟고 있었다.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조심조심 갓난아기 얼굴 씻기듯 했다. 만향은 가죽신발을 모두 빨아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한 후에야 초선언니와 마주 앉았다.

“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초선언니가 궁금한 눈빛으로 만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황도령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행사에 늦어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급박하여 앞뒤 가리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신발을 덧석 받아 신었습니다.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제 모든 것을 허락한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만향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초선언니가 감동한 듯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양반집 자제로구나.”

초선언니도 평생을 관기로 보낸 사람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퇴기가 되었고, 혼자서 적적하게 사는 만향을 돌봐주며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

초선언니는 양반들이 기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기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양반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평생에 한두 명 만나기 힘든 세상이었다. 자신의 가죽신발을 선뜻 벗어주는 양반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적이고 감동을 주기
에 충분했다.

“그 분은 일면식도 없는 저를 멀리서 발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사람 됨됨이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올 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향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가죽신발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화장대 앞에 신주단지 모시듯 황도령의 신발을 올려놓았다.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 하늘이 나에게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행운일까?’

만향은 자기 앞날에 무언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기생들의 전설

사실, 대부분의 기생들은 평생에 소망하는 꿈이 있었다. 비록 현실은 양반들 앞에서 노래와 춤과 웃음을 팔고 살지만, 언젠가는 가

정을 갖고 사는 꿈을 꾸었다.

어찌 감히 사대부들의 정실부인을 꿈꾸랴. 다만 양반들의 후실이 라도 되어 집에 들어앉아 사람대접 받고 살기를 꿈꾸었다. 굳이 양반이 아니더라도 마음 씀씀이가 괜찮은 평범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들 딸 낳고 가정을 갖고자 꿈꾸는 것이 기생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함흥기생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오는 선배기생 한 명이 있었다.

만향이 살았던 시대보다 100여 년 전쯤에, 함흥과 이웃한 홍원 출신의 홍랑이라는 기생이었다. 홍랑의 이야기는 함흥 기생들뿐만 아니라 관리들을 접대하는 자리에서도 심심찮게 이야기되곤 했다.

언젠가 만향은 평양에서 온 관리를 접대하는 자리에 불려간 적이 있었다. 술좌석에서 홍랑의 살아생전 이야기가 오고가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생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기생 홍랑의 사연은 대략 다음과 같다.

홍랑은 함경북도 두만강 국경 부근의 경성 관아에 속한 관기였다. 경성에서 관기생활을 하던 중에, 북평사로 부임해온 고죽 최경창이라는 관리와 인연을 맺었다. 최경창은 삼당시인(백광훈·최경창·이달) 중 한명으로 문장에 능했던 관리였고, 홍랑 역시도 문장을 잘 아는 기생이었다.

당시에 북쪽의 변방지역은 부임하는 관리들이 아내와 동행할 수 없었다. 자연스레 관아에 속한 기생들이 현지처 역할을 대신 하곤 했다. 이곳 병영에서 최경창과 홍랑은 부부처럼 지내며 깊은 정이 들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밀월기간은 고작 6개월 정도였다. 임기가 끝난 최경창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고, 둘 사이

에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다.

홍량은 한양으로 떠나는 최경창을 배웅하며 따라나섰다. 이별이 아쉬워 한걸음 한걸음 동행하며 도착한 곳은 함관령이었다. 함관령은 함경도 함주군과 홍원군 사이에 있는 높은 고개이다. 이곳부터는 홍량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다.

홍량은 관아에 매인 관기로서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금지선이 바로 함관령이었다. 또한 나라에는 ‘양계의 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자기지역의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법이었다. 함경도 사람으로서 함관령 고개를 넘으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홍량은 사랑하는 최경창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기생인 자신의 신세가 더욱 한스러웠다. 최경창의 품에 안겨 울며불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홍량이 작별인사를 하며 돌아서려는데, 길옆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홍량은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 최경창에게 건네주며 시 한수를 지었다.

뫓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홍량과 이별하여 한양으로 돌아온 최경창은 얼마 후에 깊은 병이 들었다. 최경창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홍량은 며칠 밤낮을 걸어서 한양으로 달려갔다.

홍량은 기생의 몸으로서 국법을 어기게 되었다. 관기로서 관할구역을 벗어났으며, 함경도사람으로서 '양계의 금'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홍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홍량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집을 떠난 후 일주일 만이었다.

한양에 도착한 홍량은 병석에 누워있는 최경창을 간호했다. 홍량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최경창은 훌훌 병을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최경창이 병석에서 일어난 기쁨도 잠시였다.

홍량이 최경창을 찾아간 것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왔다. 홍량이 최경창을 찾아갔던 시대는, 명종임금의 비인 인순왕후가 죽고 나서 채 일 년도 되지 않은 국상기간이었다.

최경창은 국상기간에 기녀와 함께 생활했다는 죄목으로 관직에서 파직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홍량은 관기로서 관할구역을 벗어났으며, 양계의 금을 어긴 죄로 다시 경성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두 사람은 경성에서 헤어진 후 한양에서 어렵게 재회했으나, 또다시 애끓는 이별을 해야 했다.

최경창은 홍량을 떠나보내며 시 한 수를 지었다.

말없이 마주보며 유란을 주노라

오늘 하늘 끝으로 떠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리

함관령에 올라서서 옛노래를 부르지 마라

지금도 비구름에 가려 청산이 어둡나니

이후 최경창은 다시 복직했으나 45세의 젊은 나이에 변방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최경창의 비보를 들은 홍량은 다시 달려갔다. 이번에는 최경창의 묘 앞에서 삼년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홍랑이 삼년동안의 시묘살이를 마칠 무렵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홍랑은 임진왜란 기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홍랑은 임진왜란 동안에 최경창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주옥같은 시들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홍랑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최경창의 집으로 찾아가, 최경창의 살아생전에 지었던 시들을 전해주었다. 그 바람에 최경창의 주옥같은 훌륭한 시들이 후세까지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

최경창의 문중에서는 홍랑의 정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후에 홍랑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정식 조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해주최씨 문중 족보에 홍랑의 이름을 올렸고, 홍랑의 무덤도 최경창이 묻힌 선산에 모셨다.

홍랑이 살아생전에는 기생으로 천대를 받았을지 몰라도, 죽어서는 양반가문의 선산에 묻히며 후손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홍랑이 기생의 몸으로 정절을 지키며 모진 고생을 견뎌냈던 그 행동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정절과 의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함흥기생들은 홍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견이 분분했다. 기생이 그렇게 수절하며 아까운 청춘을 바칠 필요가 있는냐는 생각이 대다수였다.

사실 기생들이 정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험난한 일이었다. 사대부관리들은 기생들을 관아의 부속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관리들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일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나 다름없었다.

기생들이 한사람을 위해 정조를 지킨다고 하여 인생길을 흰하게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욱 더 인생이 꼬이고 말년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 가시밭길을 힘들게 걸어갈 기생들은 없다고 대부분 손사래를 쳤다.

그때 분위기를 압도하며 불쑥 끼어드는 기생이 있었다. 한쪽에서 묵묵하게 듣고 있던 만향이였다.

“저에게 그런 인연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향에게 쏠렸다.

“와, 와……. 우리 함흥 관아에서 또 한명의 기생 열녀가 나왔구나.”

이쪽저쪽에서 기생들이 박수를 쳤다. 반쯤은 비웃음 섞인 박수라는 것을 만향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인연이 찾아와야 말이지요.”

만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에게 그런 인연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다.

“기다려 보게나. 꿈만은 아닐 것이야.”

자리에 동석한 평양 관리가 웃으며 덕담을 해줬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만향에게 정말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줄이야. 한양에서 온 황도령이 신기루처럼 만향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예감이란, 때로는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

이날 만향이 했던 말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가시밭길 앞날을
예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홍랑이 겪었던 그
길을, 만향도 비슷하게 걸어가게 될 줄이야.

2장

거미줄처럼 시작된 사랑

2장 거미줄처럼 시작된 사랑

성천강 해후

소리도 냄새도 없이 풍선처럼 부풀려서 퍼져나가는 것이 소문이다.

지난번 관찰사 환영연의 가족신발 이야기가 어느새 함흥 감영 주변에 재빠르게 퍼져나갔다. 함흥관아에 속한 기생들 사이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을 때마다 황도령의 가족신발 이야기가 특종 감으로 다뤄졌다. 나중에는 아예 황도령과 만향이 서로 연인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 퍼져나갔다.

“호호, 만향 언니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났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괜한 말들 만들지 말라니까 그러네.”

만향은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쳐댔다. 하지만 속마음은 벌써 황도령을 향하고 있음을 속일 수가 없었다.

황도령은 이런 소문에 도통 관심이 없는 듯했다. 아니, 이런 소문을 황도령이 들었을 리도 없었다. 이런 사실을 황도령에게 전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굳이 있다면 방자뿐이었다.

하지만 방자도 이런 소문을 아직까지는 듣지 못한 눈치였다. 혹시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방자가 선뜻 나서서 황도령에게 전해줄 분위기도 아니었다. 황도령은 오직 책실에 앉아 공부에만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황도령은 항상 아버지의 엄한 감시망 속에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아들의 일거일동을 세세히 살폈다. 그날그날 공부한 내용을 꼬치꼬치 묻고 확인 했다. 그야말로 황도령은 새장 속에 갇힌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황도령의 하루 일과 중에서 유일한 자유시간은 어쩌다 함흥성 누각으로 산책을 나가는 정도였다. 함흥성벽 위에 올라서서 동해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성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나마 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힐 수 있었다.

황도령이 함흥에 온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함흥의 봄은 점점 화사하게 무르익고 있었다.

황도령은 문득 봄기운을 온 몸으로 느꼈다. 함흥객사 책실 마당 주변에는 화창한 봄꽃이 이쪽저쪽에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황도령님, 하루종일 방 안에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서 좀 나와 보세요.’

울긋불긋 화려한 봄꽃들이 이쪽저쪽에서 손짓하며 황도령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얼굴을 살랑살랑 간질이며 지나가는 봄바람도 황도령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봄은 여전히 화려했다. 서쪽하늘은 황혼 빛으로 물들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득선득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럴 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구나 막내아들을 떠나보내며 울먹울먹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황도령은 문득 집 떠난 외로움이 울컥 가슴에 차올랐다.

방자는 황도령의 눈빛에서 쓸쓸한 마음을 읽어냈다.

“도련님, 오늘은 성천강 만세교를 한번 걸어보시지요.”

“.....”

황도령의 마음을 눈치 챈 방자가 만세교 산책을 제의했다. 황도령 역시도 만세교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므로 귀가 솔깃했다.

황도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성천강과 만세교를 걸어보면 기분전환이 될 것도 같았다.

성천강의 명물인 만세교는 숙종임금의 시에도 나타날 정도로 유명했다.

함흥에 예로부터 이름났던 만세교(萬歲橋)

이 다리 한번 건너면 바로 함흥이지

.....

숙종임금의 시가 아니더라도, 성천강을 가로지르는 만세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황도령 역시도 마음은 벌써 만세교로 달려가고 있었다.

황도령은 방자가 이끄는 대로 말없이 따라갔다. 책실 마당에서 출발하여 30여분 정도 걸어 성천강 입구에 도착했다.

멀찍이에서 바라보던 성천강과 직접 걸어보는 성천강은 느낌이 달랐다. 황도령의 입에서 ‘와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저녁노을에 비친 강가의 주변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야말

로 성천강 풍광은 함흥의 제일가는 명물이라는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 강물이 흐르는 백사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무르익는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황도령은 방자와 함께 백사장을 지나 만세교 입구에 도착하였다. 만세교에 첫발을 올려놓는 기분이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다리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진 만세교는, 아름드리나무를 잘라서 만든 판목이 얼켜설키 끝 모르게 이어져 있었다. 다리 폭은 두세 사람이 비켜갈 정도였는데, 입구에서 건너 끝까지는 까마득하게 보였다. 대략 짐작으로 2리는 될 것 같았다.

만세교 위에서 쉼 없이 스치며 지나가는 봄바람을 쐬는 기분이 무척 상쾌했다. 만세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저녁 햇살을 받아서 눈에 시릴 정도였다. 성천강 변으로 길게 이어진 백사장은 노을빛에 반사되며 반짝반짝 빛났다.

물살이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강물 속에는 고기 떼가 이쪽저쪽에서 펄떡거리며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다. 사람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며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물에 걸려나오는 고기들이 팔딱팔딱 싱싱하고 어른 팔뚝만 했다.

만세교 상류에서는 풍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풍악소리는 강물 상류에서 다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잠시 그 모습을 호기심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으려니, 놀이 나온 배 한 척이 사람들을 싣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배 안에는 기생 차림의 여인들과 도포차림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

다. 배는 천천히 만세교 부근까지 다가왔고, 그 바람에 주변 물결이 출렁출렁 흔들렸다. 배위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노랫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주변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황도령은 만세교를 걸으며 주변 풍광에 반하여 시간가는 줄 몰랐다. 만세교를 천천히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방자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황도령은 집밖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이 엄습해왔다. 아버지가 언제 또 불러서 하루 일과를 확인할지 모르는 일이다. 성천강 백사장을 가로지르며 함흥성 아래 낙민루 쪽으로 서둘러 걸었다.

어느새 보름달이 머리위로 휘영청 밝게 떠올랐다. 달빛을 받은 백사장 주변은 서리가 내린 듯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황도령과 방자가 낙민루 아래쪽을 걷는데, 어디서 시를 구성지게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자였다. 황도령은 목소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여인이 읊고 있는 시는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였다.

壬戌之秋 七月既望(임술지추 칠월기망)

蘇子與客泛舟 遊於赤壁之下(소자여객범주 유어적벽지하)

淸風徐來 水波不興(청풍서래 수파불흥)

舉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거주속객 송명월지시 가요조지장)

.....

임술년 가을의 칠월 보름 다음날에

나는 손님과 더불어 배를 띄워 적벽 아래에서 노니는데
맑고 시원한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며 해와 달의 시를 읊으며 그윽한
문장을 노래하노라

.....



여인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낙민루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한복을 수수하게 차려 입은 여인은 정자 기둥에 기대서서 적벽부를 구성 지게 읊고 있었다.

여인이 읊고 있는 적벽부는 성천강의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성천강에서 배를 타고 놀며 고기를 잡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으응? 저 사람은 기생 만향입니다요.”

낙민루 바로 앞에까지 다다르자 보름달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반가워서 외치는 목소리 같기도 했다.

“만향아, 여기에 웬일이야?”

방자가 급한 걸음으로 누각 마루까지 올라갔다. 황도령도 얼떨결에 몇 걸음 뒤에서 누각 마루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방자야, 너야말로 웬일이야?”

적벽부를 읊던 만향이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련님을 모시고 산책 나온 길이야.”

방자가 황도령 이야기를 꺼냈다. 순간 만향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황도령도 순간적으로 누각 마루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계속 올라가기도 어색했고 다시 내려오기도 어색한 분위기였다.

“도련님, 지난번에 가죽신발을 벗어주셨던 만향이옵니다.”

방자가 몸을 돌리며 황도령을 바라보았다. 방자가 만향을 소개하는 바람에 누각 마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황도령은 엉거주춤

서 있다가 누각 마루로 올라섰다.

“천기 만향, 도련님께 인사 올립니다. 일전에는 도련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낭패를 모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도련님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사옵니다.”

만향이 다소곳하게 머리 숙이며 큰 절을 올렸다. 절을 올리는 자세도 아름다웠고 나직한 목소리에는 진심어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만향의 갑작스런 절에 황도령은 어쩔 줄을 몰랐다.

“어허, 어서 일어나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큰절을 받는단 말인가?”

황도령은 짐짓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만향을 일으켜 세웠다. 울적한 마음에 성천강으로 산책 나와 젊은 여인을 만나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마음 한쪽에는 두근거림도 있고 백사장을 나란히 걸어본다면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황도령은 아버지의 엄한 감시망 속에 있었으므로, 감히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도련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지난번에 빌려주신 도련님의 신발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련님께 돌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하루하루 애만 태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꿈같이 도련님을 뵈었습니다. 도련님을 모시고 작으나마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누추하지만 제집에서 도련님을 한번 모시고 싶사옵니다.”

만향은 당돌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황

도령을 만났지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었다.

“어허, 자꾸만 은혜라고 하지 말게나. 내가 몹시 부끄럽네 그러. 내 가죽신발을 빌려준 것이, 무슨 큰 은혜라고까지야 할 것이 있겠는가? 내 도움으로 낭패를 모면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일일세. 또한 나는 지금 기방에 출입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네. 공부에 몰두할 몸으로서 함부로 처신할 수 없는 일이니, 신발은 아무 때나 돌려주면 될 것일세.”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방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따, 도련님도 차암, 대답하십니까요. 그렇게 찬바람 뽀뽀 내며 쌀쌀하게 사람 성의를 무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요. 저렇게 애태우며 은혜를 갚겠다는데, 빈말이라도 한번 쯤 들으겠다고 약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요.”

방자가 만향의 집에 한번 들르기를 은근슬쩍 권하고 있었다.

“어허, 너는 내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잘 알면서도 그러느냐? 어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자꾸나.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황도령은 엄한 목소리로 방자를 꾸짖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나서 꾸짖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황도령이 몸을 돌리며 낙민루 계단으로 내려섰다. 황도령은 자리를 뜨며 방자가 한말이 마음에 걸렸다. 방자 말대로 만향에게

너무 박절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지는 않았다. 무언가 만향의 마음에 오해가 없도록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낙민루 아래로 내려서다 말고 다시 만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보게 만향. 내 천성이 남에게 야박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네. 오늘 내가 너무 박절하게 말했다면 미안하네. 혹시 서운해 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이렇게 오다가다 만나서 얼굴 한번 마주치며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 아니겠는가. 오늘처럼 지나가는 길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네. 그러니 일부러 집에까지 찾아갈 것이야 뭐가 있겠는가. 오다가다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만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에 또 만나세.”

만향은 황도령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몸을 옆으로 비껴서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있었다. 달빛아래 서있는 만향은 참으로 예뻐다. 얼굴은 복사꽃처럼 발그레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여 정숙한 여인의 풍모가 있었다.

“도련님의 말씀이 제게는 모두가 황송할 뿐이옵니다. 다음에 꼭 뵈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사옵니다.”

만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작별인사를 했다.

낙민루 계단을 내려오는 황도령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쿵쿵거리고 있었다.

스물 네 살의 혈기왕성한 한창 적 나이에, 예쁜 기생을 쳐다보며 등을 돌리는 마음이 어찌 아쉽지 않겠는가. 황도령은 다시 돌아서

서 만향의 손이라도 한번 덥석 잡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다.

방자가 뒤따라 내려오며 무슨 말인가 중얼중얼 했다. 황도령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만향의 모습만 눈앞에서 아른거릴 뿐이었다.

방자는 숙소로 돌아오며 만향의 다른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댔다.

“도련님, 만향이 말입니다요.”

방자가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황도령 옆으로 바짝 다가오며 만향의 이름을 꺼냈다.

“.....”

황도령은 대답 대신 귀만 방자 쪽으로 기울였다.

“도련님, 방금 만났던 만향이라는 기생 말입니다요.”

방자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만향의 이름을 꺼냈다. 황도령이 못 들은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래 말해 보거라. 만향이 어땠다는 것이냐?”

“만향이 말입니다요. 이곳 함흥에서는 효녀 중에서도 효녀로 알려진 기생입니다요.”

“허허, 그러냐?”

황도령은 한귀로 흘려듣는 듯 했다. 하지만 방자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방자는 황도령이 관심을 보이자 신이 난 듯했다.

“예, 예, 그다음 이야기 좀 잘 들어보십시오.”

방자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줄줄 만향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만향이 무슨 연유로 기생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생이기에 앞서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다.

만향의 어머니는 만향이 어릴 적부터 몸이 아팠다. 어린 만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머니의 약을 구해왔다.

언젠가는 80여리나 떨어진 이웃 고을 흥원에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그것도 어린 몸으로 먼 길을 떠났던 것이다. 집에서 새벽에 출발했는데도 저녁 늦게야 간신히 도착했다.

어린 만향의 효심에 감동한 의원은, 그날 밤에 말을 타고 함께 함흥으로 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조제해 주었다. 어린 만향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어머니는 차도가 없이 시름시름 여러 해를 앓다가 숨을 거뒀다.

만향은 어머니를 함흥 변두리의 야산 공동묘지에 모셨다. 만향은 일 년 동안 밤낮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다. 긴장한 남자들도 실행하기 어려운 시묘살이를 한 것이다.

방자가 만향의 이야기를 끝내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황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하늘이 감동할만한 효녀로구나.”

황도령은 이제 만향의 이름이 낫설지 않았다. 막연하게나마 기생 만향의 이름 두 자가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리움은 깊어가고

만향은 낙민루 마루에 서서 멀어지는 황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도령이 성천강 만세교에 산책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너무도 뜻밖에 황도령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황도령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쉽기만 했다.

‘아,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시더니, 황도령을 만나게 해주신 거로구나.’

지난밤에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한참 서성이다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종일 신경 쓰였다. 이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었다.

역시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던 것은 길몽이었다. 어머니가 딸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황도령을 만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라는 암시였다고 믿었다.

만향은 황도령이 서있던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혹시나 황도령이 남기고 간 체취라도 남아있다면 말아보고 싶었다. 코를 훌훌 거리며 주변을 빙빙 돌아다녀보았다.

‘오다가다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만나면 될 것 아니겠는가. 다음에 또 만나세.’

황도령의 다정하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 했다. 낙민루 계단을 내려가던 황도령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천한 기생에게 가죽신발을 선뜻 벗어주던 분이 아니신가? 역시 인자하시기가 부처님 같은 분이었어.”

만향은 혼자서 실성한 사람처럼 히죽히죽 웃으며 중얼거렸다. 한 동안 낙민루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황도령 생각에 여념이 없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다.

만향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화장대 앞에 고이 모셔둔 황도령의 가죽신발을 가슴에 꼬옥 안았다. 마치 황도령 품에 안겨있는 듯, 만향의 표정은 행복한 꿈을 꾸는 듯했다.

한편 만향과 헤어져 책실로 돌아온 황도령의 마음도 싱숭생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보름달빛에 비친 만향의 복스럽고 예쁜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왜 처음 보는 기생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황도령은 머리를 좌우로 세게 흔들어들었다. 공부하는 사람이 기생 생각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밝은 보름달이 들창문으로 환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 책속에 글들이 한자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황도령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였다.
다시 책을 덮고 책실 밖으로 나왔다.

보름달빛이 마당에 가득 내려앉고 있었다. 서쪽 하늘로 약간 기울어진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었다. 황도령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만향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만향과 애기나 더 나누고 올걸 그랬나?’

황도령은 낙민루에서 서둘러 돌아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내 차암 별 생각을 다하는구나.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무얼 하자는 것인가?’

황도령은 얼른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약해지는 자신을 탓하며 다시 책실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읽었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전혀 생소한 내용으로 보였다.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니 머릿속에 들어올 리 없었다.

‘에이, 모르겠다.’

황도령은 벌러덩 뒤로 드러누웠다.

‘차라리 잠이나 자자.’

거북이걸음으로 엉금엉금 잠자리에 들어갔다. 잠을 청하는 황도령의 귓가에는 만향의 목소리만 땀땀 땀땀했다.

‘누추하지만 제집에서 도련님을 한번 모시고 싶사옵니다. 다음에 꼭 뵈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사옵니다.’

만향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앞에서는 달빛에 비

친 만향의 고운 자태가 어릿어릿 떠올랐다.

만향과의 첫 만남은 황도령을 온통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꿈속에서 만향이나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황도령은 성천강 낙민루에서 보았던 만향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옆치락 뒤치락 몸을 뒤척이며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있었다.

관찰사 순력행차

아침마다 제일 먼저 황도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방자였다. 이튿날 아침에 책실 마당으로 나온 황도령을 방자가 빙긋빙긋 웃으며 맞이했다.

“도련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방자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달랐다. 얼굴에 야릇한 웃음기가 가득했다.

“네 덕분에 어제 밤은 함흥 제일의 명승지도 걸어보고 잠도 푹 잘 잤구나. 그런데 네 표정이 왜 그런 것이냐? 아침부터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로구나.”

황도령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방자가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웃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어젯밤 꿈속에서 혹시 만향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요? 만향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요.”

방자가 난데없이 만향 이야기를 꺼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 내가 꿈속에서 만향을 만나다니?”

황도령은 어이가 없었다. 방자가 무슨 꿈속으로 만향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에이, 제가 아무리 도련님보다 세상은 조금 덜 살았어도, 양반 나리들 속마음 읽어내는 눈치는 함흥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요.”

방자가 너스레를 떨어댔다. 평소에도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방자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수다가 더욱 심했다.

“어허, 내 참으로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너 눈치 빠른 것이 어떨다는 말이나?”

황도령은 정색하고 방자를 바라보았다.

“어제 밤에 만향을 보고 나서 밤새 잠 못 이루시고 마음이 싱숭생숭 하셨을 겁니다요. 꿈속에서라도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셨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요?”

방자는 황도령 턱밑까지 얼굴을 들이대며 따지듯 대꾸했다. 얼굴 표정은 여전히 빙긋빙긋 웃고 있었다.

“어허, 참으로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다하는구나!”

황도령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방자는 여전히 빙긋빙긋 웃으며 물러날 태세가 아니었다.

“에이, 도련님도 차암 …… .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셔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디다요. 벌써 함흥에는 도련님과 만향이 연인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답디다요.”

“뭐라고? 참으로 기괴한 소문이로구나. 요즘세상은 지나가는 사람의 장단지만 보아도 허벅지와 속곳을 모두 보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네 말이 꼭 그런 꼴이로구나.”

황도령이 진짜로 화를 내며 버럭 소리쳤다.

황도령의 큰소리에 방자는 잔뜩 주눅 든 몸짓으로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다. 하지만 능글능글한 표정은 그대로였다.

‘헤헤, 내 눈치가 백단이라는 걸 도련님은 모르시나 봐. 어젯밤에 만향만 생각했다고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 뭘.’

방자는 책실 울타리 밖으로 나오며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다. 혀를 낼름 내밀며 씩 웃었다. 황도령의 속마음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는 웃음이었다.

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황도령은 기분이 이상야릇했다. 우선 아랫것에게 조롱당한 언짢은 기분이었다. 또한 방자의 짓궂은 농담에 속마음을 모두 들키고 나서 계면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만향과 연인 사이라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로구먼.”

황도령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관찰사의 근무처인 선화당 쪽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떠들썩했다. 관찰사의 순력행차준비 때문이었다. 책실 앞에서도 선화당의 분주한 모습들이 건너다 보였다.



순력이란 관찰사가 각 고을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예하 수령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방 최고 권력자의 행차이므로 온 감영이 떠들썩하게 행차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련니임, 관찰사 영감님의 순력 행차가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책실 마당 밖으로 나갔던 방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방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또 무슨 말인가 하려는 눈치였다.

“어험, 어험.”

황도령은 짐짓 방자를 무시하는 척하며 지나쳤다.

“도련님, 관찰사 영감님께서 오늘 순력을 나가셔서 일주일 후에
나 돌아오신답니다.”

방자가 바짝 따라오며 은근한 목소리로 귀뜸 했다. 아침에 보았던
짓궂은 표정과 능글거리던 목소리였다.

“이놈아! 아버지 순력 나가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또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냐?”

방자는 황도령 보다는 밖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황도령도
관찰사의 순력행차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방자가 또 무슨 꿈꿉이속으로 자신을 놀리려들지
몰라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헤헤, 오늘부터 완전히 자유 시간 아납니까요?”

“그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자유시간이라니?”

“관찰사 영감님의 감시에서 벗어났단 뜻입니다요. 마음 놓고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요?”

“참으로 듣자듣자 하니까 가관이로구나. 저리 비켜라.”

황도령은 냉정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헤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요?”

“.....?”

황도령은 방자의 수작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좋은 기회라니?’
하고 반문하려다 멈췄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방자의 능글

능글 하는 수작에 말려들 것 같았다.

황도령은 급히 걸어서 선화당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선화당 앞에는 순력 행차에 관찰사를 태우고 나갈 가마가 대령해 있었다. 때마침 황 흙 영감이 관찰사 복장 차림으로 선화당 마루를 내려서고 있었다.

“마침 잘 왔구나. 내가 없는 동안에도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관찰사 황 흙 영감은 언제나 아들의 공부가 제일 큰 관심사였다.

황도령은 어젯밤 내내 만향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일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대답을 하고 물러나왔다.

성천강 달빛 아래에서

관찰사가 순력을 떠나고 나자, 함흥감영 주변은 쥐죽은 듯했다. 항상 북적이던 선화당도 사람들의 통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전에 없이 느슨해져 있었다.

황도령도 역시 하루 종일 마음이 느슨해진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엄한 감시망 속에서 바짝 움츠러들고 긴장된 분위기가 사라지자, 책상 앞에 앉아있기도 따분했다. 하루 종일 몸이 늘어지고 맥 빠진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다.

황도령의 마음을 눈치 빠른 방자가 모를 리 없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있는 황도령 옆으로 방자가 빙긋빙긋 웃으며 다가왔다.

“도련님, 공부가 안 되는 날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오늘도 달이 밝은데 성천강이나 다시 한 번 걸어보시지요.”

“이놈아, 내가 공부가 되고 안 되는 줄을 네놈이 어떻게 안단 말이나? 괜한 수작 하지 말고 저리 가거라.”

황도령은 방자의 말을 처음부터 딱 잘랐다. 하지만 그냥 물러날 방자가 아니었다.

“아따, 차암, 도련님도!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제가 양반 나리들 속마음 읽어내는 실력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도련님 얼굴표정에 속마음이 온통 다 쓰여 있습니다요. 혹시 또 운이 좋아서 만향이라도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요.”

“뭐라고? 듣자듣자 하니까 별소리를 다하는구나!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면 내 앞에서 썩 없어지거라!”

황도령이 버럭 큰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큰소리 속에 화를 내는 표정은 하나도 없었다.

“헤헤, 알겠습니다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 할 테니 어서 서두르시지요.”

눈칫밥으로 살아가는 방자가 황도령의 속마음을 못 읽었을 리 없었다. 황도령을 이리저리 구슬려서 기어이 책실 마당 밖으로 끌어내었다. 황도령은 못이기는 척하며 방자를 따라나섰다.

‘오늘 밤에도 만향을 만날 수 있으려나?’

방자의 뒤를 따라가는 황도령 마음속에는 만향 생각이 제일 컸다.

황도령의 간절한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황도령과 만향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함흥성을 벗어나 성천강 백사장 쪽으로 걸어가던 황도령과 방자가 똑같이 걸음을 멈춰 섰다. 몇 발짝 앞에서 강 쪽으로 걸어나는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 여인의 뒷모습은 분명히 만향이었다.

“만향아!”

방자가 부리나케 만향을 부르며 달려갔다. 깜짝 놀란 만향이 주춤하며 뒤돌아섰다.

“어머, 방자야!”

만향도 반가운 모습으로 방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한걸음 뒤쪽에 서있는 황도령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길을 비켜주듯 옆으로 서서 허리 숙여 인사했다.

“허허, 만향. 오늘 또 만나서 얼굴을 보니 어젯밤보다도 더 반갑구려. 어디 약속이라도 있어서 가는 길인가?”

황도령이 만향 앞으로 한두 걸음 다가서며 먼저 말을 건넸다.

“사실은 어젯밤에 도련님을 뵈었기에, 성천강으로 자주 산책을 나오실 것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오늘도 혹시나 도련님을 뵈을 수 있을까 하여 성천강변 산책을 나오는 중이었사옵니다.”

“오호라, 이거 참으로 영광일세, 그려. 함흥 제일의 효녀에다 아

름다운 여인이 나를 생각했다니 말일세.”

황도령은 만향과 두 번 만남인데도 오랫동안 만나오던 느낌이 들었다. 어젯밤처럼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다.

“함흥 제일의 효녀라는 말씀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씀은 저에게는 과찬이시옵니다. 하지만 지난밤과 오늘 하루 종일 도련님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만향도 역시 어젯밤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황도령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했다.

“허허,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로구먼. 사실은 나도 만향 생각으로 어젯밤과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네.”

황도령은 말을 해놓고도 속으로 깜짝 놀랐다. 양반체면을 구기는 것 같아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황도령의 지금 심정은 만향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손이라도 덥석 잡고 싶을 뿐이었다.

“도련님, 정말 제 생각을 하셨사옵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기뻐 하늘을 나는 심정이옵니다.”

만향이 두 손을 가슴에 대며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방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파, 도련님도 참으로 너무 서운합니다요. 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시더니, 만향 앞에서는 어찌 그렇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시는 것입니까요?”

“허흠, 허흠.”

황도령은 방자가 옆에 있다는 생각을 잠깐 잊고 있었다. 방자의 투정에 할 말이 없었다. 방자를 보기가 무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방자가 끼어들며 잠깐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방자가 다시 추스르고 있었다.

“저기 강변에서 요란하게 굿을 하고 있구먼. 저는 잠깐 굿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요.”

방자는 역시 눈치가 빨랐다. 자신이 서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것이다. 얼른 분위기를 바꾸며 굿하는 방향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갔다.

“.....”

“.....”

황도령과 만향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둘은 방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서먹서먹하게 서있었다.

황도령은 서먹한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만향도 자연스럽게 황도령 뒤를 따랐다.

황도령과 만향이 몇 걸음 걸어서 당도한 곳은 낙민루 부근 산 언덕 아래였다. 두 남녀는 산 언덕 아래 호젓한 곳에서 나란히 섰다.

황도령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만 쿵쥔거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전 처음 낯선 여인과 걸어보는 기분은 꿈을 꾸는 듯했다. 만향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화장 냄새가 향긋하게 코끝을 스쳐갔다. 이런 향기도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냄새였다.

만향도 가슴이 쿵쥔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황도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가슴만 답답하고 울렁였다.



“이보게, 만향. 성천강으로 자주 산책을 나오는가?”

황도령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만향은 겨우 막혔던 숨을 쉴 것 같았다. 기다렸다는 듯 얼른 대답했다.

“어쩌다 한 번씩 산책을 나옵니다. 어제는 달빛이 너무도 좋아서 달맞이를 나왔었지요. 뜻밖에도 도련님을 뵈었기에, 오늘부터는

매일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었사옵니다. 혹시나 또다시 뵐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사옵니다.”

“허어, 너무 미안하기 그지없네, 그러. 내가 어찌다가 자네 마음에 그토록 큰 짐을 짊어지게 했단 말인가?”

황도령은 만향의 달콤한 고백에 마음이 울렁울렁 했다. 생전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야릇한 호기심이 가슴에 차올랐다.

“도련님께서 저에게 큰 짐을 지우셨다니요? 천부당만부당 하시옵니다. 저는 처녀의 몸으로 도련님의 가죽신발을 덧신 받아 신었사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만향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황도령을 향한 완전한 사랑고백이었다.

황도령은 만향을 바라보며 황홀한 꿈을 꾸는 듯했다. 비록 기생이긴 했지만 젊고 예쁜 여인으로부터 사랑고백을 받다니…….

황도령의 가슴이 갑자기 뜨겁게 벅차올랐다. 온몸에 열기가 후끈 올라오며 신열을 앓는 기분이었다.

“만향아!”

황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만향을 와락 끌어안았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른다. 방금 전까지도 말을 못하며 주저주저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만향도 황도령의 품안으로 자연스럽게 폭 안겼다.

두 젊은 남녀의 뜨거운 열기가 서로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가슴에서 쿵쥔거리는 울림도 서로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황도령은 황

도령대로, 만향은 만향대로, 생전 처음 이성을 안아보고 이성에게 안겨보는 순간이었다. 두 몸이 한 몸처럼 서있는 두 사람은 떨어질 줄을 몰랐다.

성천강을 뒤덮고 있는 대낮같은 달빛은, 신분을 뛰어넘은 두 청년 남녀의 뜨거운 포옹을 몰래몰래 훑쳐보고 있었다.

연리지 같은 사랑 약속

이날 이후로 황도령과 만향은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도저히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안절부절 못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오장육부가 모두 타들어간다는, 옛 시 한 구절이 무색할 정도였다.

항 흠 대감이 순력나간 일주일은 황도령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새장을 뚫쳐나온 새처럼 밤마다 자유롭게 만향을 찾아다녔다.

황도령과 만향은 밤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만났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성천강 낙민루 부근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면 꼭 그 시간에 서로가 있었다.

함흥 지리에 밝은 만향은 황도령을 이곳저곳으로 안내했다.

“도련님, 오늘 밤에는 함흥 본궁을 한번 가보시겠사옵니까?”

“그곳은 태조 임금님의 고향집 아닌가? 밤을 새워서라도 가보고 싶네.”

황도령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함흥에 와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도련님께서 이처럼 좋아하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만향은 십리가 넘는 길이라서 추천을 하고나서도 은근히 걱정하던 참이었다. 뜻밖에도 황도령이 좋아하므로 힘이 났다.

함흥본궁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집이다. 또한 ‘함흥차사’의 유래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방원은 두 번에 걸쳐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형제들을 죽였다. 화가 난 이성계는 함흥 고향집으로 옮겨와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 방원이 신하들을 함흥으로 보내어 한양으로 돌아오기를 청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이성계는 함흥차사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함흥차사들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 후 함흥차사는 ‘심부름을 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이것이 함흥차사의 유래이다.

황도령과 만향은 밤길을 나란히 걸으며 함흥본궁으로 향했다. 왕복 두 시간은 걸리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한창 사랑에 불붙은 두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길을 걷다 호젓한 곳을 만나면 잠시 쉬었다. 그때마다 포옹도 하고 입도 맞추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한 시간 남짓 걸어 도착한 함흥본궁은 풍패루가 제일 볼만 했다. 풍패루는 2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앞에 연못이 아름다웠다. 연못에는 꽃잎을 피우기 직전의 연잎들이 무성했다. 아담한 연



못 속에 비친 풍패루 그림자가 환상적이었다.

함흥본궁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도 갈 때와 똑같은 분위기였다.

쉬엄쉬엄 걸어 함흥성 밖 민가까지 도착했다.

만향이 함흥 민가 앞에서 주춤주춤했다.

“도련님, 저기가 바로 저희 집이옵니다.”

만향이 민가 안쪽의 초가집 한 채를 가리켰다.

“……!”

황도령은 말없이 만향의 집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만향의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만향의 집은 기생이 기거하는 집이라는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대문 앞에 걸어놓는 청사초롱도 없고 조용하기만 했다. 집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푸른 대숲이 바람에 사각일 뿐이었다.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고 갈까?”

황도령은 만향과 헤어지기 아쉬웠다. 둘이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도련님께서 들르신다면 영광이옵니다.”

사실은 만향도 황도령이 자기 집에 들렀다 가기를 원했다. 만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황도령은 만향의 안내를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만향의 집 안마당은 달빛만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인기척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여인 한 명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고 계신 초선언니입니다.”

만향이 초선언니를 소개했다.

“도련님의 고고하신 인품과 소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향이가 자나 깨나 황도령님 말씀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초선언니가 건넌방으로 황도령을 안내했다.

건넌방은 만향의 방이었다. 만향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며 촛대에 불을 붙였다. 촛불이 켜지며 방안의 모습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만향의 방은 화장대와 옷장이 전부였다. 참으로 수수하기 이를 데 없는 살림살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눈에 익은 황도령의 가죽신발이 신주단지처럼 놓여 있었다.

“향기 나는 화장대 위에 저 가죽신발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

황도령은 자신의 신발을 보며 반가웠다. 하지만 화장대 위에 놓여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았다.

“저에게는 도련님의 가죽신발이 제일 향기가 나는 보물이옵니다. 항상 도련님을 마주하듯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허허, 내가 쑥스럽기 그지없네, 그러. 앞으로는 장롱 속에 넣어 두고 보고 싶을 때나 꺼내 보게나. 내가 사랑의 징표로 남겨놓고 갈 것이네.”

“언제쯤 돌려드릴까 망설였는데, 저에게 징표로 주신다니 영광이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죽신발을 사랑의 징표로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네.”

그사이에 초선 언니가 자그만 주안상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황도령이 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늘밤 참으로 귀하고 귀하신 손님을 모셨사옵니다. 도련님은 이 세상에서 만향의 방에 들어오신 첫 남자이시옵니다.”

초선언니가 주안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허허, 그렇던가? 참으로 영광이네, 그러.”

황도령이 너털웃음을 지었다.

“오늘밤에 하현달이 휘영청 밝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십시오.”

초선언니가 상을 내려놓고 뒷걸음으로 물러갔다.

아닌게 아니라 보름이 지나고 하현달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방안에 켜놓은 촛불보다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더욱 교교했다.

황도령과 만향이 주안상 앞에서 마주 앉았다. 황도령은 아직까지 기생집에 드나든 경험이 없었다. 황도령에게는 너무도 낯선 분위기였다.

“도련님께 약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방안 분위기를 만향이 주도했다. 만향이 주전자를 들고 술을 권했다. 황도령은 말없이 술잔을 들어올렸다.

“부끄럽지만 내 생전에 기방에는 처음 들어와 본 거라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황도령은 술잔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향에게 술을 받아 마시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다.

“마음 놓고 편하게 드십시오. 저도 도련님 앞에서 술을 따르는 것이 떨리웁니다.”

만향이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황도령은 만향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셨다. 술기운이 온몸으로 쏘아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만향이 살포시 일어나더니 방 한쪽에 놓여있는 거문고를 가져왔다. 황도령 앞에 마주 앉아서 거문고를 무릎 앞에 올려놓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르며 거문고 한 줄을 튕기자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선율이 울려 나왔다. 거문고 울림통을 빠져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은 술에 취한 황도령을 무아지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만향!”

황도령이 달뜬 목소리로 만향을 불렀다. 만향은 듣지 못하고 거문고 줄만 튕겼다. 촛불에 비친 만향의 얼굴이 분홍빛이었다. 고개 숙인 얼굴 아래로 드러난 목살과 가슴골은 뇌쇄적이었다.

황도령의 숨소리가 더욱 더 거칠어졌다. 스물넷의 젊음과 본능적인 욕망을 잠재울 수 없었다.

“만향!”

황도령은 만향 앞으로 다가갔다. 온몸으로 덥석 만향을 끌어안았다. 거문고 소리가 푹 그쳤고, 만향은 쓰러지듯 황도령 품안으로 안겨왔다. 만향은 황도령의 품에 안기며 온 몸을 고스란히 맡겼다.

황도령의 떨리는 손은 만향의 온 몸 구석구석을 더듬어 내려갔다. 만향의 저고리와 치마끈을 풀어내며 운우지락의 황홀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황도령과 만향이 내쉬는 숨소리는 점점 거친 파도가 되어 갔다. 밤하늘 하현달빛이 숨죽이며 신방을 엿보고 있었다. 방안을 밝히던 촛불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흔들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황도령과 만향은 몸도 마음도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질 때까지 뜨겁게 사랑했다.

둘은 만날 때마다 연리지 같은 사랑나무가 되기를 소원했다.

연리지는 두 나무가 한 몸처럼 붙어있는 나무를 말한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이어져서 마치 한 나무처럼 양분을 나눠주며 자라는 나무이다.

연리지는 한쪽 나무의 뿌리가 잘못되어도 서로 이어진 가지를 통하여 수분이 공급되므로 죽지 않는다고 한다.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나 짝은 부부애를 상징하는 사랑나무이다.

황도령과 만향은 만날 때마다 연리지 나무가 되기를 약속했다. 신분을 뛰어 넘어 연리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한 몸이 될 것을 약속했다.

3장

이별과 수절의 고통

3장 이별과 수절의 고통

이별 소식

1703년 가을 무렵이었다.

가을 내내 아름답던 낙엽들이 땅바닥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찬바람은 낙엽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주변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황도령은 책실 마당을 산책하며 어지럽게 훑날리는 낙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황도령의 조용한 산책 분위기를 방자가 급하게 달려오며 깨쳐 놓았다.

“도련님, 지금 빨리 선화당으로 들어오시라는 분부입니다.”

“이렇게 일찍?”

황도령은 아버지가 대낮에 아들을 부르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그동안은 대부분 업무를 마치고 내아로 들어간 후에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였다. 근무시간에 아들을 부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황도령은 부랴부랴 책실로 들어가 읽던 책을 주섬주섬 챙겼다. 그동안에도 황도령은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공부하던 책을 들고 들어갔다. 그날 공부한 범위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곤 했다.

오늘도 당연히 공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줄로 생각

했다. 책을 들고 아버지가 업무를 보는 선화당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앉거라. 방금 한양에서 교지가 내려왔다. 내가 한양의 내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구나.”

“.....”

황도령은 아버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잠깐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내가 대사간으로 발령을 받았구나. 그러니 너도 빨리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라.”

황도령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아, 예, 아버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황도령은 부랴부랴 머리 숙여 축하인사를 했다. 그런데 얼굴빛은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

“너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왜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은 것이냐?”

아버지가 황도령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 아닙니다. 갑자기 듣는 소식이라서 잠깐 얼떨떨했을 뿐입니다.”

황도령은 아버지의 발령소식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만향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 년이 넘게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난다는 기쁨은 뒷전이였다. 우선 만향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가슴을 답답하게 옥죄어 왔다.

“인제인수를 서둘러 끝낸 후에 내일 모레면 떠날 것이니라. 너도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서둘러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도령은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오며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만향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황도령은 책실로 들어와 잠깐 생각을 정리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기는커녕 얼키설키 복잡할 뿐이었다.

황도령은 책실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와 만향의 집으로 향했다. 그 동안에는 만향의 집에 갈 때마다 도둑고양이가 된 심정이었다. 이 쪽저쪽 주변 분위기를 살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몰래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저것 가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도령은 만향의 집 대문 안으로 황급하게 들어섰다. 다행히도 만향은 집에 있었다. 초선언니와 함께 안마당 여기저기 어지럽게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는 중이었다.

“도련님! 이렇게 벌건 대낮에 어인 일이세요?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났나요?”

만향이 마당 쓸던 비를 내던지고 정색하며 반겼다.

만향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는 황도령을 반기면서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동안은 해가 떨어진 밤 시간에만 조심조심 찾아오던 황도령이 아니었던가. 이처럼 한 낮에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왔을 때는 필시 긴급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 황도령이 대낮에 찾아온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채었다.

만향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황도령을 방으로 안내했

다. 방안에서 마주앉은 두 사람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만향은 숨죽이며 황도령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만향아! 아버지가 한양 내직으로 발령이 나셨다는구나!”

황도령은 아버지의 발령 소식을 전하며 그렇그렇 눈물이 맺혔다. 순간 만향의 눈에서도 왈각 눈물이 쏟아졌다.

“도련님!”

만향은 와락 황도령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황도령 품에 기절할 듯 쓰러지며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황도령 품으로 파고드는 만향의 몸부림은 점점 거세졌다.

만향은 황도령의 이별소식을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언젠가는 한양으로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별소식을 듣고 나자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 내렸다. 만향의 흐느낌은 폭포소리보다도 더 크게 방문 밖으로 새어나갔다.

만향의 방 밖에서 가슴조이며 서있던 초선언니도 눈앞이 캄캄했다. 만향의 통곡소리가 애간장을 끊어내는 아픔보다도 더했다. 초선언니는 차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만향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황도령의 품에서 떨어지며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치켜들었다.

“도련님!”

만향은 다시 황도령 품으로 파고들었다.



황도령과 이별을 앞 둔 만향의 마음은 어땠을까? 춘향전 속에서 이도령과 헤어지는 춘향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송성욱이 풀어 옮겨놓은 ‘춘향전’ 속에서의 이별장면이, 지금 만향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도 남을 것 같다.

촛불을 돋워 켜고 둘이 서로 마주 앉아 갈 일을 생각하고 보낼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한숨 나고 눈물겨워 목메어 울면서 얼굴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 보며,

“날 볼 날이 몇 밤이오. 주위 눈길 피해 가며 이리 보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 나의 설운 사정 들어보오.

나이 육순 나의 모친 일가친척 하나 없고 다만 외동딸 나 하나라. 도련님께 의탁하여 영귀(榮貴)할까 바랐더니,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이 꾀방 놓아 이 지경이 되었구나.

애고 애고 내 일이야. 도련님이 올라가면 나는 뉘를 믿고 사오리까. 쌓이고 쌓인 걱정과 나의 회포, 밤낮으로 어이 하리. 배꽃, 복숭아꽃 만발할 적에 물가에 나가 어찌 놀며, 국화꽃, 단풍 늦어갈 제 그 높은 절개 어찌 숭상할꼬. 독수공방 긴긴 밤에 전전반측 어이하리.

쉬느니 한숨이요 뿌리느니 눈물이라. 적막강산 달 밝은 밤에 두견새 울음소리를 어이 하리. 바람과 서리 몰아쳐도 절개를 지켜 만리 길을 마다 앓고 짝 찾는 저 기러기 울음소리를 뉘라서 그치게 하오며, 춘하추동 사시절에 첩첩이 쌓인 경치를 보는 것도 근심이요 듣는 것도 근심이라.”

춘향이가 이별소식을 듣고 이도령에게 하소연하던 말이다. 그야말로 구곡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애절함이 뚝뚝 묻어나고 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이나 황도령과 만향의 이별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한양 관리들과 기생들이 만나 정이 들고 이별하는 안타까운 장면은 여러 곳에서 목격된다. 그 모든 이별들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황해도 해주기생인 명선의 이별도 가슴 아프다. 명선은 이십대 중반의 김진사와 일 년 남짓한 기간 동안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둘 사이의 이별은 예견된 일이었다.

정병설의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에는, 김진사가 다시 한양으로 떠나간다는 이별소식을 듣는 순간, 기생 명선이 받은 충격을 글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순간을 표현한 기생 명선의 마음이, 이별 통보를 받은 만향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별소식을 듣다

백 년을 길이 맺어 청산같이 늙지 말자
살아생전 이 세상에 이별 말자 원이러니
좋은 때는 빨리 가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적막 여름 다다라서 일진광풍 일어나니
푸른 하늘 무너지고 탄탄 평지 꺼지도다
생각 밖에 경질되니
청천백일 밝은 날에 뇌성벽력 내리는 듯
생각잡은 이내 간장 못 바늘로 찌르는 듯
먹지 않은 술이 취코 눈 뜨고 가위 눌림
피차에 듣는 눈물 네 줄 폭포 되었도다
하늘은 어두워져 불려도 대답 않고
귀신이 곁에 있어도 이내 병 못 고친다
좋은 일은 수이 가니 정한 날이 얼마 되리
수레를 재촉하여 부임 행차 내보내니
촌촌이 끓는 간장 곳곳이 상심처라

기생 명선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마음을 걱정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알 것이다.

마음에 일진광풍이 일어난다거나, 푸른 하늘이 무너지고 탄탄 평지가 꺼진다거나, 청천백일에 뇌성벽력이 내리친다거나,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듯 하다는 등의 표현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황도령과 만향은 분위기를 추스르며 다시 마주앉았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황도령과 만향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송성옥이 풀어 옮겨놓은 ‘춘향전’의 대화 장면을 또 한 번 옮겨와 보자. 이별소식을 듣고 울며불며 몸부림치던 춘향이가 했던 말이다. 춘향이의 말이 곧 만향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춘향이 또 울며 하는 말이,

“도련님 올라가면 살구꽃 피는 봄날 거리마다 술을 권할 것이며, 기생집의 아름다운 여색을 집집마다 보실 것이며, 가는 곳마다 풍악소리 울릴 것이라. 색 밝히시는 도련님이 밤낮으로 호강하며 노실 때, 나같은 시골 천한 계집이야 손톱만큼이나 생각하오리까. 애고애고 내 일이야.”

“춘향아 울지 마라. 한양성 남북촌에 아름다운 여인 많건만 규중심처 깊은 정은 너밖에 없었으니, 이 아무리 대장부인들 잠시라도 잊을쏘냐.”

춘향이는 이도령이 자기를 잊고 다른 여인들에게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도령은 절대로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춘향이를 안심시키느라고 정신이 없다.

또 다른 이별 모습도 있다.

함경도 단천지방 관기였던 일선의 이야기다. 구운몽의 저자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은 기생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일선의 절행을 장편서사시로 지어서 널리 알렸다. 이 시 제목이 『단천절부시(端川節婦詩)』이다.

기생 일선과 연분을 맺은 사람은 기인이라는 책방도령이다. 기인은 단천고를 수령이던 아버지를 따라가 2년여 동안 머물며 기생 일선과 깊은 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별도 예견된 일이었다. 기인과 일선은 눈앞에 닥쳐온 이별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일선은 한양으로 떠나는 기인을 마운령 고개까지 배웅하였다. 마운령 고갯마루에는 물줄기가 동서 양쪽으로 길게 흐르고 있었다.

기인은 동서 양쪽으로 나뉘어 끝 모르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일선에게 말했다.

“우리 둘의 이별도 저렇게 각각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구나. 너는 단천에 머물고 나는 한양으로 각각 서로 갈 길을 가듯이 말이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난단 말이냐? 다시 만난다는 기약도 없이 세월만 한없이 흘러갈 것이다.

더구나 네 나이가 지금 한창 젊은데 그대로 늙을 수도 없거니와 독수공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휘휘 늘어진 버들가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꺾으려 덤벼들 것 아니겠느냐? 필시 너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길 터이니 잘 섬기거라. 그리고 가끔씩 옛사람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양으로 떠나는 기인은 마운령 고개까지 마중 나온 일선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만 기생인 일선이 자기를 위해 수절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기생인 일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길가에 버들가지 신세인 일선이었으므로 조만간에 다른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기인의 말은, 어찌 보면 기생 처지를 이해하는 참으로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기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아주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했으므로 헤어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말이다.

하지만 일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켜냈다.

단천절부시는 일선과 기인이 고갯마루에서 이별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별 후에 일선이 정절을 지키는 모습도 잘 묘사했다.

시에 나오는 상사라는 이름은 기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선이 상사를 전송하며
마운령 고갯마루에서 이별하는구나
마운령 고갯마루에 흐르는 물은
동서로 제각각 흘러가는데
두 줄기 물은 계속 멀어지며
천리 또 천리로구나
상사가 일선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별도 이 물줄기 같구나
한창적인 네 나이를 버릴 수도 없고
독수공방도 어려울 것이니라
휘휘 늘어진 버들가지는
지나는 사람마다 손을 뻗칠 것이니
다시 만날 사람 잘 섬기고
가끔씩 옛 사람도 생각해주려무나

일선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기인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야속했을까.

일선은 울먹울먹하며 대답했다.

일선이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는데
이 말씀 어찌 차마 들으리오
동거한 지 두 해 남짓에
첩의 몸은 이미 서방님의 몸입니다
두 몸은 비록 헤어지지만
두 마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일선은 비장한 각오로 대답하며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수절을 다짐했다.

이후 일선은 기인과 헤어져 단천에 홀로 남았다.

단천의 신임 군수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안찰사가 중앙에서 순시차 내려오자 일선에게 수청을 명했다. 하지만 일선은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다가 도리어 노여움만 사고 말았다.

일선의 어머니는 기생으로서 지방관의 수청을 드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명에 따르라고 거들었다. 일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집 앞 우물에 투신했다. 일선의 투신은 미수로 그치고 말았다.

일선은 여러 해 동안 수절을 지키다 기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일선은 즉시 기인의 집으로 달려가 온갖 수모를 견뎌내며 3년 상을 치르고 단천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일선은 끝까지 수절하며 일선과 헤어질 때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처럼 관리와 기생들의 이별과 이별후의 모습들도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황도령은 만향과 헤어지며 어떤 말을 했을까?

만향에게 젊은 나이가 아까우므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지내라고 모진 소리를 했을까? 아니면 황도령만 생각하며 몸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 했을까? 황도령 자신도 절대로 마음이 변치 않고 만향만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을까?

황도령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만향의 대답은 확실했을 것이다.

“제 몸은 이미 도련님의 것입니다. 지금 비록 헤어지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고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 확실하다.

기생들이 겪는 배신의 고통

황도령을 떠나보낸 만향은 한동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황도령이 생각날 때마다 성천강 주변을 혼자서 한없이 걸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서 쓸쓸한 마음을 더욱 가눌 길이 없었다.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서글펐다.

황도령은 함흥에 있을 때처럼 만향을 사랑해줄 것인가? 만향은 황도령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다.

함흥 주변에는 사대부들에게 버림받은 기생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왔다. 먼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은 기생들의 생생한 실화였다. 이런 사실들이 만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함흥을 거쳐 간 사대부들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기생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임지를 떠나가면 영영 소식 없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사대부관리들의 속성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영악한 기생들은 쉽게 깊은 정을 주지 않았다. 사대부 양반들을 달콤한 꽃에 앉아서 잠깐 머물다 날아가는 벌과 나비 정도로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잠시잠깐동안 자신의 꽃에서 샘솟는 꿀을 조금 나눠준 것으로 생각하며 냉정하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사대부 남자들의 부질없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가슴앓이를 하는 기생들이 문제였다. 함흥 관기들이 잠깐 머물다 떠난 사대부관리들에게 너무도 깊은 정을 주었다가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함흥에 살던 기생 취련이 그랬다.

취련은 함흥에서 한양의 명문거족 출신인 관리와 만났다. 이 관리의 군사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고 부임하였다.

한양 관리와 취련은 만나자마자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 취련은 얼굴도 예뻐지만 가무와 시에도 능했다. 한양 관리도 글과 멋을 아는 사람이었다.

한양관리와 취련의 사랑은 단번에 무르익었다. 둘 사이의 장래도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꿈같은 사랑은 채 일 년도 채우지 못했다. 한양관리가 임기를 끝내고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내가 반드시 취련을 데려갈 것이네. 그러니 몸을 잘 보전하고 있게나.”

한양관리는 함흥을 떠나며 굳게 약속했다.

“서방님,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서방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취련은 한양관리의 말을 믿고 하루하루 힘겹게 정절을 지켰다. 관아에 속한 기생의 수절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양반관리들은 관기들의 소중한 정절을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양반 관리들이 생각하는 관기들은, 그

저 관아에 속한 소유물일 뿐이었다. 그들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관기의 운명이었다. 그 명을 어길 때에는 가혹한 형벌이 따라오기 일쑤였다.

취련 역시도 양반관리들의 집요한 요구를 피했다.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보내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갔다. 취련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한양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하지만 한양으로 떠난 관리는 소식이 없었다.

취련은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너무너무 그리워 하룻밤에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센다고 했다. 창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간절한 편지를 썼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절 답장이 없었다. 취련은 그리운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다.

어느날 한양으로 관리를 찾아 떠났다. 몇날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한양으로 달려갔다.

함흥에서 한양이 얼마나 먼 길인가? 취련은 모진 고생을 감당하며 한양으로 달려가 관리와 만났다. 취련은 관리를 만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그림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므로 당장 쓰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서방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취련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취련아 ……”

한양 관리도 목이 메었다. 불원천리 멀고먼 길을 달려온 취련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그동안 소식 한번 보내지 못한 자신이 미안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취련을 가슴에 안고 한참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한양관리와 취련이 다시 만난 기쁨은 현실 앞에서 높은 벽에 부딪혔다. 명문거족의 자제인 한양관리가 취련을 집으로 데려갈 상황이 아니었다. 한양관리는 집안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처지였다. 부모 못지않게 엄한 형들도 층층으로 있었다. 천한 신분의 기생을 드러내놓고 집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양관리는 취련을 한양성 밖으로 안내하였다. 초라한 민가를 얻어 며칠을 함께 보냈다. 관리와 취련은 드러내놓고 만날 수도 없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도둑질하듯 며칠을 함께 보냈다.

취련은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을 눈치 채었다. 한양관리가 더 이상 취련을 돌봐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취련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함흥으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취련의 이야기는 한동안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취련의 감동적인 절개를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함흥으로 되돌아온 취련은 한양관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끝끝내 한양관리는 취련을 찾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생 취련의 사랑이야기다.

또 다른 기생의 이야기가 북쪽지방에 전해온다.

한양 선비가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온 일이 있었다. 이때 명천 기생 군산월을 만났다.

군산월 역시도 미모가 빼어났고 글도 잘 아는 기생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날 기대를 갖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냈다. 그러던 중에 19세의 나이에 한양에서 유배 온 관리를 만난 것이다.

군산월은 한양 관리에게 19년 동안 지켰던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유배에서 해제되면 자신을 데리고 가겠다는 관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몸을 허락했다. 유배기간 동안 관리를 서방님으로 극진하게 모셨다.

어느덧 관리는 유배에서 해제되어 한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관리는 약속대로 군산월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양에 거의 도착하여 마음이 변하고 말았다.

그가 마음이 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유배객은 북쪽의 관리를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한 국법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관리는 군산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고향 산천에 함께 가서 슬하에 아들 딸 놓고 살자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난처하고 어렵구나. 내가 본래 잘 못하여 너를 속였으니,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잘 가거라.”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이별 통보였다. 닛을 놓고 앉아있는 군산월에게 또 한마디 덧붙였다.

“제주목사 장 대장은 제주를 떠나올 때에, 정들었던 기생을 잊지 못하고 칼로 베어 미련을 끊었다. 그러나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으

므로 그냥 돌려보낸다.”

는 것이었다. 군산월을 차마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일종의 협박성 이별통보였다.

이 순간 군산월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 글에 능했던 군산월은 그 순간의 참담한 심정을 시로 표현했다.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구구절절 창자를 끊는 듯한 글이었다. 그 글이 ‘군산월애원가’이다.

(상략)

이게 차마 웬 말이오
버릴 심사 있었거든
칠보산 계실 때에
아주 멀리 하시지

무단히 언약 맺고
몇 번을 몸을 굽히던 정이
태산 같은데

허다한 사람 다 버리고
협하고 협한 먼먼 길을
모시고 왔더니

그다지도 무정하오
그다지도 야속하오
산과 물이 멀고 먼데
돌아가라 분부하니

(중략)

이별하고 돌아가면
적적한 빈 방안의
십구 세 이내 광음
속절없이 되었구나

연약한 이내 몸을
몇 철이나 흠쳐다가
사고무친 타관객지
돌아 갈길 망망한데
이다지도 버리시오

(중략)

이곳에서 죽자 한들
누가 죽는 줄을 누가 알며
설운 심정 누가 알꼬

시름과 눈물로 밤새우고
외로운 이 한 몸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하략)

위에서 보듯이 관기였던 군산월과 취련은 온몸으로 사대부들을 사랑했던 여인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배신으로 끝을 맺었다. 배신당한 기생들의 이후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다.

사대부들이야 기생들과의 사랑을 잠깐 스쳐가는 놀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친 기생의 입장에서는 하 놀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기생들의 숙명이라면 숙명인 것이다.

기생들이 겪는 수청의 고통

한양에서 관리가 순시 차 지방관아에 내려 올 때마다, 지방관아에서는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지방행정 책임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에게 최대한 잘 보여야 했다. 그들은 지방행정의 잘잘못을 살펴 중앙에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와 한줄 보고서가 자신의 신분변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들의 마음에 들도록 접대를 잘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아 영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의 접대에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생들이었다.

중앙 관리의 높고 낮은 비중에 따라서 접대하는 수준도 비례하였다. 최상급 관리들이 순시를 올 때는, 온 관아가 난리법석을 떨며 접대준비에 몰두했다. 관리가 들어오는 고을 입구로 나가 나장이 피리와 나팔을 불며 길을 인도했다. 관리가 관아 앞에 도착하면 수십 명의 기생들이 좌우 길에 허리를 숙이고 서서 성대하게 맞이했다.



곧이어 동헌마루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기생들이 춤을 추고 술시중을 들었다. 기생들은 중앙관리의 좌우에 붙어 앉아 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중앙관리들의 행태도 각양각색이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관리들은 처음부터 기생에 관심이 많았다. 옆에 와서 술을 따르는 기생들의 인물부터 위아래로 살피보았다. 술잔을 들고 옆에 온 기생이 마음에 안 들면 안색부터 일그러지고

뜨악한 표정이었다. 어쩌다 애교가 많고 인물이라도 반반한 기생이 옆에 오면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럴 때는 기생을 대하는 태도가 나긋나긋하고 옆에 오래 앉혀놓으려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런 관리들은 십중팔구 밤에 수청들 기생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중앙관리의 잠자리에 수청을 명령받은 기생은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관리가 처음 발을 내딛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현지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했다. 이는 곧 관아의 책임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었다. 수청기생의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고 나면, 그 기생은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었다.

대부분 고을의 수령이나 높은 관리들의 수청은 상방기생들이 차지했다. 상방기생들은 인물도 빼어나고 각종 예의범절이나 예능적인 소질이 뛰어났다. 거기에다가 남자들을 다루는 능력이 수준급이었다. 상방기생들이야말로 일류급 기생들인 것이다.

그 아래로는 일반기생들이었다. 그녀들은 고을의 일반 손님이나 선비의 수청을 들곤 했다. 일반기생들의 수청에 따른 고통과 비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일반기생들의 비애는 공주 관기의 일화에서 확연하게 엿볼 수 있다.

어느날 충청도 공주 관아에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공주관원은 손님을 접대하고 밤에 기생을 불러 수청을 들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나 기생은 밤중에 달아나고 선비는 혼자서 밤을 새웠다. 혼자서 밤을 보낸 선비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선비는 아침이 되자 공주 관원에게 항의했다. 관청에 매인 기생이 어찌 명을 어기고 사사로이 달아나버리느냐고 따졌다. 공주 관아의 관원은 기생을 불러 엄중하게 질책했다.

공주 기생이 울며 항변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공주는 한양에서 오르내리는 길목에 있으므로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방과 하방을 출입하는 수청 기생들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 몇 명 되지 않는 저희들이 오가는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집에 가는 날이 이삼일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모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지라, 밤새 잠을 못자게 하며 괴롭히면서 음란한 짓을 실컷 합니다. 저희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여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하룻밤 쉬려고 한 것뿐이지, 사사로운 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기생이 울며 하소연했다.

공주 관원은 기생의 말을 듣고 착잡한 표정으로 선비에게 말했다.

“차마 기생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겠습니다.”

선비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도 공주 관아의 관원은 참으로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사람이다. 기생의 하소연을 듣고 처지를 이해하여 용서해주었으니 말이다. 기생을 관아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관원들은 기생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심한 매질로 그들을 다루기가 일쑤였다.

매를 맞고 죽거나 고통을 겪은 기생들의 이야기는 기록으로도 술하게 전한다.

만향을 옥죄어 오는 수청 요구

만향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들로부터 비교적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만향의 지극한 효성을 관리들이 인정해주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만향의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 했다.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어 혼자서는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소·대변까지 옆에서 받아내야 하는 중병이었다.

병석의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은 무남독녀 만향의 몫이었다. 그러므로 만향은 어머니 곁에서 오랜 시간 떠나있을 수가 없었다. 관아의 연회나 관리들의 환영연 장소에 불려나갔다가 부리나케 돌아오곤 했다.

만향의 지극한 효성은, 다른 관기들이 밤새워 겪는 수청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다. 밤 동안에는 어머니의 병석을 지키는 것으로 수청을 면제받았다. 만향의 처지를 이해한 동료기생들도 온정적으로 감싸주었다.

수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만향은 일 년 동안 시묘살이를 택했다. 시묘살이는 만향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성심에서 우러나온 일이었다. 시묘살이 기간에도 관기의 일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만향이 시묘살이를 끝내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호의적인 분위기들은 점점 퇴색했다. 만향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다. 언제라도 수청의 명이 떨어지면 수행해야 할 처지가 되

었다.

그때 신기루처럼 황도령이 나타나며 만향을 지켜준 것이다.

함흥관리들은 만향이 황도령의 연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 최고 권력자의 아들과 연인관계인 만향을 불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기생들이 참여하는 술자리에 만향은 빠졌다.

하지만 이제는 황도령도 함흥을 떠나고 말았다. 만향이 하늘처럼 기대던 언덕이 사라진 것이다. 만향을 지켜줄 우산 같은 인물은 함흥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야말로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허허벌판에 홀로 나앉은 기분이었다.

만향의 걱정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양의 젊은 관리가 변방 순시 차 함흥에 왔을 때였다. 함흥의 동료기생 초운이 한양관리의 뒷바라지를 명령받았다. 초운은 얼굴도 예쁘지만 연회자리에서도 애교가 넘쳤다. 당연히 함흥에 오는 관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초운은 한양관리의 변방 순시에도 동행할 것을 명령 받았다. 초운도 싫지 않아서 기꺼이 한양관리의 지역 순찰에 여러 날 동안 동행 했다. 그동안 둘 사이에는 깊은 정이 들었다.

문제는 한양관리가 함흥을 떠나고 서너 달 후에 일어났다.

또 다른 관리가 함흥에 순시 차 방문했을 때였다. 관장은 이번에도 초운에게 한양관리의 뒷바라지와 수청을 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운이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정말로 송구하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한양의 손님을 모시며

함께 지내는 사이에 그분의 아기를 갖게 되었사옵니다. 이미 제 몸에 태기가 있사온데, 어떻게 다른 분을 모실 수가 있겠사옵니까?”

초운에게 수청을 명령했던 관장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불같이 화를 내며 행수기생을 불렀다.

“너는 어찌하여 관아의 기생들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기생들이 아무 때나 임신하여 공무를 그르치게 한단 말이나?”

“죽을죄를 지었사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시키겠습니다.”

행수기생 역시도 참으로 난감할 뿐이었다. 남녀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기생들의 임신을 무슨 수로 막아낸단 말인가?

옛 시절에 여성들의 피임방식은 참으로 원시적이었다. 특히 기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대다수 기생들은 창호지를 자궁 속에 넣는 피임방법을 사용했다. 성관계 직후에 특수가공한 창호지를 자궁 속에 넣으면 정액을 빨아들여 피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원시적인 피임방법은 성공보다도 실패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관장인들 모를 리 없었다. 신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행수기생을 불러 호통을 치거나 곤장을 때리기 일쑤였다.

행수기생인들 무슨 뽕죽한 수가 있겠는가? 죄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 사죄하고 또 사죄했다. 납작 엎드려서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비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관장도 인간인지라, 임신한 기생에게 수청을 들라고 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리저리 생각 하다가 떠오른 얼굴이 ‘만향’이었다.

관장이 만향을 떠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만향은 한양관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다른 기생과 함께 검무를 추었다. 한양관리가 만향의 검무 추는 모습을 보며 유난히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만향을 불러 오늘밤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관장은 행수기생에게 관아가 찌렁찌렁 울리도록 큰소리로 명령했다.

행수기생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동안 남자들의 술한 유혹을 눈 하나 까딱 앓고 피해왔던 만향이 수청 들 리 만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만향을 당장 불러들이라 하지 않느냐?”

관장이 또다시 호령했다.

“예, 예, 즉시 대령하겠습니다.”

행수기생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양관리의 수청을 들라는 소식은 즉시 만향에게 전해졌다.

만향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수청 소식을 듣는 순간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했다.

만향은 잠시 당황하다가 얼른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늘이 무너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향은 입

술을 깨물며 관장 앞으로 나아갔다.

“오늘밤에 한양 손님의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오신 손님이니 성의껏 모셔야 한다. 알겠느냐?”

“.....”

만향은 허리를 숙이고 부복한 자세로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왜 대답이 없는 것이냐?”

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으리의 명을 어기는 것이 죽을죄를 짓는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황도령님의 사랑을 입은 몸이옵니다. 수청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관장은 잠깐동안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만향을 쳐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대답했느냐?”

관장이 다그쳐 물었다.

“수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정을 준 분이 있습니다.”

만향은 죽을 각오로 대답했다.

“뭐라고?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명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펄쩍펄쩍 뛰었다.

“참으로 마개 빠진 년이로구나! 천한 기생 주제에 무슨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냐! 당장 저년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관장의 명을 받은 사령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얼굴을 자주 대하는 만향에게 곤장을 때리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을 끌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저년에게 곤장을 치라고 하지 않느냐?”

관장의 서릿발 같은 호령에 사령들은 마지못해 형틀을 갖다 놓았다.

관장은 만향을 형틀에 묶게 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네 이년! 아직도 명을 어길 것이냐?”

“천한 기생의 몸이오나, 한번 먹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사옵니다.”

“뭐라고? 참으로 독한 년이로구나! 저년을 매우 쳐라!”

관장은 노기등등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령들은 차마 곤장을 내리치며 힘을 줄 수 없었다. 눈치껏 살살 힘을 빼며 곤장을 쳤다.

“한 대요! 두 대요!”

그 모습을 관장이 보며 더욱 큰 소리로 명령했다.

“뭐하는 것이냐? 힘껏 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슬 퍼런 관장의 호령에 사령들은 더 이상 요령을 피울 수 없었다. 팔에 힘을 주어 곤장을 내리쳤다.

“세 대요! 네 대요! …… 스무 대요!”

만향은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며 곤장 이십대를 맞았다. 기생들이 하루에 맞는 곤장은 이십대를 넘지 않는 법도가 있었다.

“저년을 옥에 쳐 넣어라. 내일 또 곤장을 칠 것이다!”

관장은 화를 삭이지 못하며 자리를 떴다.

만향은 감옥에 앉아 통곡하며 신세를 한탄했다.

“어머니! 저승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기생 신세도 서러운데, 제 몸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를 어머니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만향은 통곡하며 울부짖다 혼절하여 쓰러졌다.



함흥 민가를 휩쓴 큰 불

만향이 감옥에 갇혀있는 밤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동해바다에서 태풍이라도 올라오는지, 밤이 깊어가며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고 있었다.

만향과 함께 사는 퇴기 초선언니가 미음을 끓여갖고 왔다.

“세상이 어수선했으니까 날씨가 이지경이구나. 에이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

초선언니가 날씨를 탓하며 속상한 화풀이를 했다.

“저 관장이란 작자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매몰차게 사람을 때리다니…….”

“천한 기생으로 태어난 것이 죄이지요. 기생은 수절할 권리도 없으니 말입니다.”

만향과 초선언니가 속상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초운도 면회를 왔다.

“만향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만향 언니가 괴로움을 겪게 되었으니…….”

초운이 울먹이며 만향의 피멍든 다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초운은 아무런 죄도 없으니 미안해할 것 없어. 홀몸도 아닌데 몸관리나 잘 해.”

만향이 초운을 위로했다.

“언니…….”

초운이 만향을 얼싸 안았다. 만향과 초운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

참을 올었다.

이튿날에도 만향과 가까운 기생들이 간간히 면회를 왔다. 기생들은 진심으로 만향을 위로하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관장을 욕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만향과 절친한 기생들은 면전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황도령이 과거에 붙었다는 소식도 없을뿐더러, 과거에 합격한다고 너를 당장 꽃가마 태워줄 것도 아니잖아?”

만향을 바라보며 참으로 딱하다고 다그쳤다.

“나도 알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뿐이야.”

만향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너, 나중에 정말로 후회 안할 자신이 있어?”

친구 기생이 또 다그쳤다.

“후회 안할 거야!”

만향이 확신하듯 대답했다.

“으이그,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아. 지하에 계신 엄마가 지금 그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친구 기생들은 자신의 일처럼 속이 상했던 것이다. 만향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고통당하는 모습이 마음 아파서 하는 말이었다.

만향은 감옥에서 또다시 하루저녁을 보냈다. 낮 동안은 동료기생들이 면회를 와주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날씨가 어수선해서인지 관장은 만향을 더 이상 불러내지 않았다.

만향은 한편으로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생각도 했다. 이런저런 수청요구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시도 때도 없이 불러

가는 고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감옥에서 둘째 날 밤을 보내며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옥신옥신 쭈셔오는 아픔을 참으며 잠깐 눈을 붙였다.

만향은 잠결에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함흥성 밖 민가에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향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마도 시간은 새벽녘 쯤 되었던 것 같다.

“불이야! 불이야!”

만향은 깜짝 놀라서 감옥 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보아 불이 난 듯했다. 마른 봄에 크고 작은 불이 자주 나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큰 불이 난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만향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만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함흥성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불은 때마침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지며 옆집으로 번졌다. 처마를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있던 민가는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불길에 휩싸인 자기 집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 화마가 활쾨고 지나간 집들은 포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하기만 했다.

불길은 날이 흰하게 밝을 때까지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아침 나절이 되면서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나운 불길은 만향의 집 주변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잠깐 후면 만향의 집이 불길 속에 휩싸일 차례였다.

그 순간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나운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불길은 거짓말처럼 만향의 집을 비켜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만향의 집을 비켜간 불길은 또다시 주변 집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함흥 민가를 덮친 불길은 한낮이 되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잠熄했다. 주변 민가 수백 채를 모두 태운 후에 스스로 꺼졌다. 오직 만향이 사는 집만 온전할 뿐이었다.

사람들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다녔다. 함흥민가에 큰 불이 난 것보다도, 불길이 만향의 집을 피해간 것이 더욱 큰 화젯거리였다.

사람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향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한마디씩 주고받았다. 함흥성 주변 민가에 발생한 불은 만향을 신비롭게 만들고 있었다.

함흥민가의 불로 인하여 민심이 술렁술렁 흔들렸다.

“만향을 감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린 것이 화를 불러온 것이야!”

“만향의 효심과 정절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야!”

만향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린 관장은 더욱 더 불안했다. 하늘이 돕는 만향을 잘못 건드렸다면 속으로 겁을 먹고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관장은 만향을 더 이상 만만하게 다룰 수가 없었다. 만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만향을 당장 풀어주어라.”

만향은 그 즉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만향이 집으로 돌아오며 바라본 주변 모습은, 검은 잿더미 같아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황도령의 과거급제 소식

관장은 더 이상 만향을 불러내지 않았다. 지난번 화재사건 이후로 만향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함흥 민심이 술렁이는 것도 관장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집이 불타서 오갈 곳이 없어진 함흥 민심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언제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바뀔지 모르는 일이었다.

함흥에는 이런저런 흥흥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었다.

그중에 하나는 만향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만향을 험하게 다룬 관장의 행위가 하늘의 분노를 사서 생긴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관장은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만향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곤장 20대를 맞은 후유증도 컸지만, 마음의 병이 더 컸다.

만향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요즘처럼 서글썸했던 적이 없었다.

‘왜 세상은 이처럼 불평등한가? 이세상은 왜 양반들만 활개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힘없는 천민들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

연한단 말인가?’

만향은 자신이 천민 계급인 기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속상했다.

만향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또 있었다.

동료기생들이 귀가 따갑도록 충고하던 말들이다. 감옥에 면회 왔던 동료기생들의 이야기가 귓전에서 맴맴 사라지지 않았다.

“바보야, 빨리 마음 바꿔 먹어. 황도령이 어느 세월에 과거에 합격하여 자리 잡고 너를 데려간다는 말이냐?”

“황도령은 함흥을 떠날 때부터 너를 잊은 것이 틀림없어. 소식 한 장 없는 황도령인데,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수절을 한단 말이냐?”

“너는 사대부집 여인이 아니야! 양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천한 기생이야, 바보야!”

동료들은 만향에게 수도 없이 황도령을 잊어버리라고 충고했다. 나이 먹어 퇴기가 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만향은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감을 상실할 때도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도련님은 정말로 나를 잊었던 말인가?’

만향은 헛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회한이 밀려오기도 했다. 자리에 누워있는 내내 별별 생각들이 만향의 뇌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만향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느날 절친한 동료 기생이 만향을 찾아왔다.

“애, 만향아, 아주 중요한 정보야. 황도령님이 과거에 합격했다는구나!”

“뭐라구? 어디서 들은 소식이야?”

만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황도령의 소식이었다.

“오늘 낮에 한양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나왔어. 함흥 민가의 화재 소식을 조정에서 전해 듣고 부랴부랴 관리를 파견했다는구나. 불길이 너희 집을 비켜간 것도 화젯거리였지. 너와 황도령 관계도 자연스럽게 화젯거리였고 말야. 한양관리가 소식을 전해준 거니까 정확할 거야.”

동료기생은 황도령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뛰어온 것이다. 어찌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도 헉헉거렸다.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황도령 얘기를 급하게 전해주었다.

“아이고, 이제야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셨구나!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만향은 소식을 전해 듣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방금까지 몸져누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련님이 언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더냐?”

만향이 다시 물었다.

“대략 삼년 쯤 되었다나 봐. 지금 벼슬길에 나갔다고 하더구나.”

“뭐어? 벌써 삼년씩이나 되었다고?”

만향은 잠깐 숨을 골라 쉬었다. 황도령의 과거급제가 삼년이나

지났는데도 자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만향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도령이 만향을 잊지 않았다면 최소한 과거급제 소식은 전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향은 다시 풀이 죽은 모습이 되었다. 만향의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기생도 고개를 가웃했다.

“나도 그게 이상하지 뭐냐? 과거 급제하기 전에는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그랬다고 하자. 그런데 과거에 합격했으면 소식은 한번쯤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쩌면 삼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도 없었던 말이나?”

“아마도 처음에 벼슬길에 나가서 정신이 없으셨을 거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업무에 익숙해진 후에 연락해도 늦지 않잖아.”

만향은 애써 황도령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 바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헛물을 켜는 것 같아. 황도령은 한양으로 올라간 후에 벌써 결혼도 했다던데, 뭘.”

친구기생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뭐어? 결혼도 하셨대?”

만향은 또 한 번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잠시 멍한 모습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결혼뿐이야? 자식도 있다던데…….”

“자식까지?”

만향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잠깐 눈을 감고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만향도 언젠가는 황도령이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황도령이 결혼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려면 가문이 빛나는 집안에서 천한 기생을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겠는가? 언젠가 벼슬길에 나간 후에 능력이 되면 기적에서 빼주고 후실로라도 데려가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황도령의 결혼도 당연했고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는 것도 자연스런 일 아닌가? 그런데도 만향의 마음 한 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애썼지만 야속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여자의 질투심인지도 몰랐다.

만향은 황도령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날 밤에 만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초선언니를 붙잡고 울며 불며 하소연했다.

“초선언니, 아무래도 제가 배신 당한지도 모르겠어요. 도련님의 과거급제 소식이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러게 말야. 어쩔 그렇게 소식 한 번 없을까? 벌써 몇 년 세월이 흐른 거야?”

초선언니도 답답한 마음은 만향 못지않았다. 차마 겉으로 내색은 안했지만 만향의 수절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만향 혼자서 애만 태우다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언뜻언뜻 밀려오곤 했다.

“초선 언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꼴저꼴 안보고 좋을 것 같아요. 관리들의 수청 요구를 언제까지 피해갈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만향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다.

“애,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말아라!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바보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초선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만향을 꾸짖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만향이 얼른 분위기를 바꿨다.

만향과 초선언니는 밤이 늦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만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초선언니의 방에까지 들려왔다.

초선언니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정신이 몽롱하며 완전히 잠 속에 빠져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몽사몽간에 뒤숭숭한 꿈만 잔뜩 꾸었다.

초선언니는 정신이 어렴풋한 상태에서 만향의 방 문 여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잠깐 화장실에 가는 것이라니 했다.

투신 소동과 함흥 탈출

새벽 일찍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오기 시작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인 아낙도 있었고 물지게를 지고 나온 아낙도 있었다.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어른 세 명 정도가 서있는 깊이였다.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전체 깊이의 반쯤 차 있었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우물이었다.

새벽에 우물가로 나온 사람들은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내렸다.

두레박이 수면에 떨어질 때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물속에 푹 잠기곤 했다. 물속에 잠긴 두레박은 물 아래로 가라앉으며 줄이 팽팽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때 줄을 잡아당기면 찰랑찰랑 물을 가득 담은 두레박이 우물 밖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오늘은 두레박이 우물 수면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맨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으응? 우물이 이상하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두레박을 두 번 세 번 다시 우물 속에 던져 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저것 좀 봐! 우물이 모두 말랐어!”

우물 속을 자세히 살펴보던 사람이 소리쳤다.

“생전 마르지 않는 우물인데 이상하네!”

“이게 무슨 조화속일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너도나도 우물 속으로 머리를 디밀고 아래쪽을 자세히 살폈다. 날이 희뿌연 하게 밝아오며 우물 속이 흰하게 드러났다.

“사람이 빠졌다! 우물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

우물 속을 살피던 사람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사람 한 명이 우물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급히 뛰어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우물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지고 젊은 사람이 급히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만향이네!”



우물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웅웅 울리며 들려왔다.

“만향이랴구?”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만향이 우물 속에 빠져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우물 밖으로 건져 올려진 만향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옷은 모두 물에 젖고 머리는 산발하여 온전한 사람 같지가 않았다.

“이것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어?”

초선언니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 나와 만향을 끌어안았다. 만향은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다.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온 마을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만향의 자살 소동은 또다시 함흥 주변을 소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만향이 우물에 빠졌는데, 물이 모두 말라있지 뭐냐?”

“만향이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우물물이 다시 콰콰 솟아나지 뭐야?”

참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만향이 투신하자 우물이 말랐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만향이 구출되고 나서 물이 다시 샘솟았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 기록으로 전하고 있으니 무시하기도 어렵다.

함흥민가의 불이 만향의 집을 비켜갔다는 이야기나, 우물에 투신했지만 우물물이 말라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온다.

만향의 정절과 효행심이 뛰어나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래저래 만향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힘을 입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여인이 된 것이다.

만향은 한동안 풀이 죽은 모습으로 두문불출했다.

조선언니도 만향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때는 혼자 있도록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만향의 투신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만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조선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만향 앞에 앉았다.

“만향아, 황도령을 한번 만나보고 오는 것이 어떨겠니?”

“.....”

만향이 잠자코 있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맞아, 언니! 내가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만향의 얼굴에 생기가 비쳤다.

“도련님이 변심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내가 왜 죽을 생각부터 했을까?”

만향은 왜 자신이 직접 한양에 가볼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다.

“도련님도 뵙고 싶고, 근황도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독한 마음을 먹든지 말든지 하란 말이다.”

조선언니가 힘을 실어줬다.

한번 죽기로 결심했던 만향은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었다.

함흥에서 한양까지는 정확하게 8백 68리나 되는 거리다. 요즘 거리 계산 단위로는 217km나 떨어진 먼 곳이다. 걸음걸이가 빠른 장정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걸어야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 멀고도 먼 길이다.

만향의 걸음으로는 한양까지 며칠이나 걸릴지 계산할 수가 없었다. 열흘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다.

어느날 만향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조선언니의 배웅을 받으며 남장차림으로 함흥을 떠난 것이다.

4장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

4장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에 재미있는 전설 하나가 전해온다.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황 흙 집안의 산소자리와 관련된 전설이다.

황씨 집안에서 조상 산소자리를 잡을 때 유명한 지관을 초청하였다. 나중에 황 흙이 세상을 떠나면 부부를 함께 합장할 산소자리이기도 했다. 초청된 지관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원천마을 청광산 기슭에 묘자리를 잡아주었다.

이 산소자리의 형국은 장군전마형(將軍轉馬形)이었다. 장군이 지친 말을 쉬게 하고 새로운 말로 갈아타는 형국의 명당 터였다.

그런데 산소자리를 잡고난 지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여 아쉽다는 것이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후손들이 진지하게 물었다. 지관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했다.

장군전마형의 명당이 완벽해지려면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군 주변에 부하도 있어야 하고 보검 등의 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사와 훌륭한 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산소자리는, 그 후손 중에서 명장이나 명지휘관이 나온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잘 갖춰졌는데, 아쉽게도 훌륭한 말에 해

당되는 주변 지세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명당 터는 주변에서 말발굽소리가 항상 떠들썩하게 들려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후손들은 낙담을 하며 해결방법을 물었다. 지관의 대답인즉,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산소자리 아래로 말들이 오고가는 역(驛)을 옮겨오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역은 항상 말들이 여러 마리 씩 대기하는 곳이고, 관리들이 오고가며 갈아타는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설명이었다.

지관이 제시한 해결방법은 일종의 비보풍수였다. 비보풍수란, 어떤 지형이나 산세가 풍수지리상으로 부족하면 이를 인공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지관의 설명을 듣던 후손들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런 문제라면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 막강한 집안에서는 크게 어려운 해결방법이 아니었다.

조상의 산소를 정한 후손들은 인근지역에 있던 역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역재마을에 있던 역을 홍동면 원천리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곳으로 옮겨온 역은 ‘세천역’이라고 불렸다.

실제로 역을 옮겨온 것은 한참 후대의 일이다. 하지만 황씨 집안의 막강한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 아닐 수 없다.

세천역의 유래가 황도령 집안의 산소자리와 관련된 전설이어서 흥미롭다.

남장하고 찾아온 여인

때는 1718년 무렵으로 추측 된다.

황씨 집안의 산소자리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는 바로 그 마을이다.

젊은 사람 한 명이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다. 젊은이는 행색이 초라하고 발걸음도 비틀거렸다. 얼마나 먼 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밥을 굶었는지, 도무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누더기처럼 걸쳐 입은 바지와 저고리는 차마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얼굴에도 땀국물이 새카맣게 젖어 있었다.

“저어,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황규하 도련님 댁이 어디인가요?”

젊은이는 황도령 댁을 찾고 있었다.

“황도령 댁이라고요?”

젊은이와 마주친 사람은 이 마을에 사는 김씨였다. 김씨는 젊은이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옷 입은 모습은 남자였지만 목소리는 틀림없는 여자였다. 뭔가 낯새가 이상했다.

“황규하 도련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댁인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제발 좀 가르쳐주십시오.”

젊은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초췌한 겉모습과 다르게 언행은 한 치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예사 사람이 아닌 듯했다.

김씨는 젊은이를 살펴보며 궁금증이 밀려왔다. 아무리 살펴보아

도 여자인 것이 틀림없었다.

‘남장을 하고 찾아온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김씨는 젊은이의 정체가 궁금했다. 하지만 더 이상 꼬치꼬치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도령을 찾는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 보였다.

김씨는 황도령 소식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황도령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어기, 저 언덕배기 위에 누워있는…….”

김씨는 마을안쪽 세 번째 갈래 길 언덕배기를 손으로 가리켰다. 멀리 언덕배기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산소가 하나 보였다.

“저 언덕배기에는 집이 안 보이는군요. 산소 하나만 보이는 걸요.”

젊은이는 마을사람이 가리키는 쪽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무덤 하나밖에는 없었다.

“예, 맞아요. 그 산소 주인공이…….”

김씨는 더 이상 말끝을 잇지 못했다.

젊은이가 갑자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입술만 달막달막 움직였다.

“황규하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씨는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고개만 끄덕였다.

“아, 아, 도련님…….”

젊은이는 비명처럼 나직하게 외마디 소리를 내었다.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듯이 폭 쓰러졌다. 마을사람은 깜짝 놀랐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리세요.”

김씨는 젊은이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젊은이는 정신을
잃고 숨만 할딱이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백짓장처럼 변해 있
었다.

“어허, 이런 낭패가 있나? 내 원 참…….”

김씨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우선 급
한대로 젊은이를 들쳐 업고 집으로 내달렸다. 젊은이를 방안에 눕
히고 찬물을 떠다 먹이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김씨는 젊은이를 간호하며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젊은
이가 쓰러지며 ‘도련님’이라고 애절하게 부르던 말이 귓가에서 떠
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사실 황도령은 이미 부인이 있는 몸이었다. 황도령 슬하에는 어
린 아들도 하나 두고 있었다. 처자가 있는 황도령을 찾는 젊은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황도령을
찾아온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으음, 도련님…….”

젊은이는 한참동안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날 줄을 몰랐다. 들릴 듯
말 듯 가냘픈 목소리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김씨가 살펴본 젊은이는 분명히 여자였다. 남장을 하고 찾아온
젊은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만 갔다.

함홍기생 만향

여인은 몇 시간이 흐른 후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여보시오, 젊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기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미음 좀 드세요.”

김씨는 부인과 함께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다. 아직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젊은이는 부인의 옷을 건네주며 임시로 갈아 입도록 권했다.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찾으면서 얼굴색도 살아나고 있었다.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일어나 앉은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만 같았다. 주변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제 이름은 만향이라고 합니다. 함홍 기생입니다.”

여인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기력을 찾았고, 공손한 자세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김씨는 오래도록 풀지 못하던 숙제 하나를 해결한 기분이었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황도령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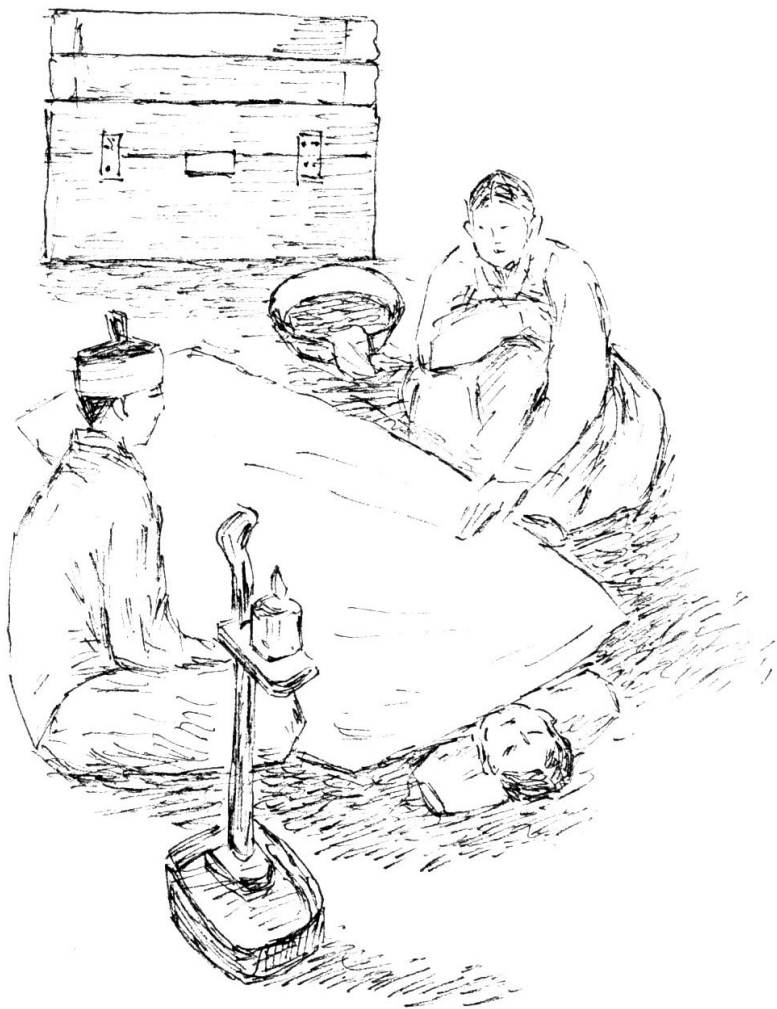
김씨는 젊은 여인의 정체를 알고 나자, 내친 김에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을 물었다.

“황도령님은 제가 첫정을 준 남자입니다.”

여인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황도령과 첫정을 맺었던 사이라고요?”

김씨는 깜짝 놀랐다. 여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서 속은



시원했지만, 또 다른 궁금증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기생이 첫정을 준 남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더구나 황도령은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 아닌가?

김씨는 다시 물었다.

“황도령과는 언제 어떻게 만난 사이였나요?”

“십여 년 전에 함흥에서 만났습니다. 황 흙 영감님께서 함경도 관찰사로 함흥에 오셨을 때…….”

김씨는 대충 짐작 가는 것이 있었다. 십여 년 전에 황도령의 아버지가 함경도관찰사로 근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황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함흥에 갔었다는 것도 아는 일이다.

“아하, 그러니까 황도령이 함흥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두 분이 연인 사이가 되었군요.”

“…….”

여인은 컷불이 붙어지며 고개만 끄덕였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

만향이 수절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동안, 황도령은 한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만향과 헤어져 한양으로 올라온 황도령은 계속 공부에만 매달렸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만향의 얼굴이 수시로 떠오른 했다. 그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만향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양반가문의 자제로서 우선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황도령이 생각하기에 만향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였다.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것만이 만향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황도령이 벼슬길에 나갈 수만 있다면, 기회를 보아서 함흥으로 임지를 정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상상을 수도 없이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곤 했다.

집안에서는 황도령을 한없이 총각으로 놓아둘 수 없었다. 비록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미 결혼 적령기를 훨씬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도령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매파들이 집안을 들락거리며 혼담이야기를 하고 갔다.

황도령은 집안에서 자신의 결혼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알았다. 집안에서 결혼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다. 함흥에 두고 온 만향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곤 했다.

하지만 황도령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아직까지도 벼슬길은 커녕,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한 신세가 아닌가. 더욱이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의 사대부 집안에서, 한때 정을 주었던 기생 이야기를 꺼내놓을 분위기도 아니었다.

결국 황도령은 만향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집안에서 정한 배필과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다. 황도령의 처가 역시도 권세가 대단한 집안이었다. 황씨 가문 못지않은 권세를 자랑하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과 결혼한 것이다.

황도령은 결혼 후에도 한동안 과거와는 인연이 멀었다.

황도령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그의 나이 36세 때인 1713년이다.

만향과 헤어지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황도령은 1713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황도령의 벼슬살이

황도령은 과거에 합격한 후에 어떤 벼슬살이를 했을지 궁금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황도령이 다섯 번에 걸쳐서 관직을 제수 받은 기록이 나타난다.

1713년(숙종39) 11월 23일에 검열(檢閱)의 관직을 제수 받았고, 1715년(숙종41) 4월 28일에는 겸설서(兼設書)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1715년(숙종41) 7월 7일에는 지평(持平)의 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1715년(숙종41) 10월 22일에는 별검춘추(別兼春秋)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마지막 관직은 1716년(숙종42) 7월 14일에 부수찬(副修撰)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이상의 기록들을 참고하여 황도령의 벼슬살이 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황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맡은 관직은 예문관 소속의 검열(檢閱)이라는 직책이었다. 검열은 정9품 벼슬로서 오늘날의 8급인 서기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이곳에서 국왕이 하달하는 지시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으로는 왕세자에게 유교경전과 도덕을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직급도 올라가서 정7품 벼슬의 겸설서(兼設書)를 역임하였다. 이 직급은 오늘날의 6급 주사에

해당되는 벼슬이다.

황도령이 다음으로 근무했던 부서는 사헌부였다. 사헌부는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고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며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던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정5품 벼슬의 지평(持平)을 역임했다. 오늘날의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벼슬이다.

이후에는 홍문관(弘文館)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經書) 및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을 맡아보던 관서이다. 조선시대에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삼사(三司)라고 부르던 중요한 기관이었다. 황도령은 홍문관에서 종6품 벼슬인 부수찬(副修撰)을 지냈다. 오늘날의 4급 서기관에 해당되는 벼슬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도령이 벼슬살이를 한 기간은 삼년 정도였다. 이 짧은 기간에 벼슬의 직급은 수직상승하였고 직책도 점점 비중 있는 곳으로 옮겨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황도령의 벼슬살이 배경에는 본인의 뛰어난 실력도 있었겠지만 가문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황도령이 홍문록(弘文錄)과 도당록(都堂錄)에 올랐던 기록이 있다.

1716년(숙종42) 4월 27일 자 기록에는 “홍문록(弘文錄)을 만드는데 모두 17인을 뽑았다.”고 기록되어있다. 홍문록 17명 중에 황규하의 이름이 들어있다.

홍문록(弘文錄)이란, 홍문관원 후보로 결정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홍문관의 결원에 대비하여 미리 후보자를

결정해놓는 제도였다. 홍문관원이 되려면 우선 홍문록에 이름이 올라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홍문록은 3년마다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선발 인원은 보통 15명 전후였다.

홍문록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제교(知製敎)가 될 만한 수준의 문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경연관(經筵官)이 될 정도의 학문 수준이 되어야 가능했다. 더불어서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또한 1716년(숙종42) 6월 16일의 기록에는, “도당록(都堂錄)을 만들었는데 22인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다. 도당록 22명의 명단 속에 황규하의 이름이 올라있다. 도당록이란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등을 임명하기 위한 2차 선거 기록을 말한다.

이외에도 1716년(숙종42)년 11월 21일 기록에는 “도당에서 홍문록에 뽑힌 사람을 개권(改圈)하여 17인을 뽑고 8인을 태거(太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17인의 명단 속에 황규하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처럼 홍문록과 도당록 등에 황도령의 이름이 올랐다는 자체만으로도, 그의 가문과 학문적인 수준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황도령이 벼슬길에 나가서 활동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1715년 7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황규하가 사헌부에서 지평의 벼슬로 재임하며 임금에게 상소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지평(持平) 황규하(黃奎河)가 상소(上疏)하여 맨 먼저 양역(良役)을 정장(更張)하는 데 대한 대책을 말하고, 다음으로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역사(役事)가 커서 재정의 소모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르기를,

“조지서(造紙署)에 창고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군량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고, 수문(水門)의 익성(翼城)은 절차가 장대(長大)해서 엄연한 하나의 성(城)과 같습니다. 대저 한 도성(都城)이라도 오히려 그 규모가 넓고 큰 것을 병통으로 여기는데, 지금 세 성은 둘레가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니니, 설혹 위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역사를 정지하게 하고 다시 묘당에 물어서 지킬 만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쌓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리청(經理廳)에서 주관하여 수호(守護)하는 것은 이미 명목(名目)에서 벗어나 공급(供給)과 수응(酬應)을 모두 저 경외(京外)에서 취하고 있는데, 점포를 설치하고 독[圖]을 쌓으려면 소요스러움이 많을 것이니, 빨리 경리청을 없애고 양주목(楊州牧)을 산성(山城)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불편하다면 유양(維楊)의 두세 지역을 분할하고 고양(高陽)의 한 두 면(面)을 나누어서 고을을 설치하여 수령을 둔다면 전일하게 주관(主管)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량(軍糧)의 조적(糶糶 봄에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 이자를 붙여서 거둬들이는 것을 적(糶)이라 함.)은 원근(遠近)의 민인(民人)이 도로(道路)에서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본래의 조곡(糶糶) 이외에도 모곡(耗穀)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받고 싶어하는 백성이 없고 원망하는 소리만 길에 가득합니다. 신은 또한 생각하건대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에 수침(水沈)된 경우 그 수침미(水沈米)를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던 것) 만 허락하고, 그 모곡은 받지 말
아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 하락 -

이상이 황도령이 벼슬길에 나가서 활동했던 기록과 흔적 들
이다.

황도령의 낙향과 사망

황도령은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 만향을 잊고 있었을까?

황도령이 아무리 공부에 전념했더라도 만향을 잊지는 못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비록 기생과의 사랑이었지만, 첫 정을 주었던 여인
을 그리 쉽게 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황도령은 벼슬길에 나가서도 만향을 수시로 생각했을 것 같다.
특히 선배 관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만향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다.

남자들의 속성상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 시절의 가장 좋은 술자리 화젯거리는 뭐
니 뭐니 해도 기생들과의 경험담이었을 것이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자신의 위상 과시를 위해 기생편력을 자랑으
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기생 체험담을 영웅처럼 자
랑으로 삼았던 관리들의 이야기가 옛 기록에도 많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문집인 용재총화에서 발췌하여, 조선해어화사에 소개한 다음 이야기가 좋은 예이다. 어느 높은 관리들이 지방에 순시 나갔을 때 기생들과의 일화를 주고받은 경험담이다.

최한량이라는 관리가 말했다.

“왕명을 받아서 사신으로 가는 즐거움이 비록 많으나 이별의 괴로움 또한 애끓는다. 봄바람 부는 좋은 시절에 준마를 타고 이름 있는 고을에 들어서면 낙락장송이 길 좌우에 늘어서서 십리에 뻗쳐있고, 반소매 달린 청의를 입은 나장이 둘씩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피리소리와 나팔소리가 아련히 울려 퍼진다. 말이 사납게 뛰어 달려서 멈추지 않으면 역부가 고삐를 잡고 간다. 대문 밖에 당도하면 머리를 쪽 저 엮은 기생 수십 명이 길 왼쪽에 부복해있으며 혹 머리를 들어서 쳐다보기도 한다. 나는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말에서 내려 상방으로 들어가 마음속으로 묵념하기를,

‘오늘 밤엔 어떤 사람이 잠자리를 함께 해줄 건가?’

하고, 기생이 다과를 담은 쟁반을 받들고 들어오면 또 생각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 반신반의 한다. 그러다 보면 담당관원이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동헌에서 술자리가 벌어진다.

내가 일어나서 술을 돌리고자 하면 기생이 술잔을 받들고 들어오는데, 그 용모가 추악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통이 터져 가슴이 답답하고 무료하며, 고을의 산천이 모두 무색하게 보이고 좌우 사람들을 몽둥이질하여 내쫓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사

람이 애교가 있고 아름다워서 마음에 들면, 담당관원의 거동이 모두 명관처럼 보이고 지붕 위의 까마귀마저도 예쁘게 보인다.

며칠 묵노라면 낮에는 술에 취하고 밤에는 잠자리의 재미에 취하여 심신이 황홀해진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쾌락을 누린다. 더 머물면 반드시 몸에 병이 생길 것이다.’

하여 비로소 떠날 마음을 두게 된다.

기생은 내 팔을 베개 삼아 베고 슬피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담당관원은 문밖에 자리를 마련하고 이별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그동안 내 소매를 당겨 술을 권하여 보내니,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말을 타고 문을 나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누렇게 보일 뿐 빛이 없다.

말 위에서 혼곤히 잠들어 반은 깨어있고 반은 술 취한 몽롱한 상태에서, 그녀가 얼굴에 미소를 실어 표연히 길가에 나앉은 것을 보고 눈을 뜨니 잔디밭이 앞에 있다. 그 사람이 또 길가에 앉아 있어서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이번에는 밤나무 숲이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물소리가 모두 음악소리 노래 소리로 들린다.

날이 저물어서 역사에 드니, 쥐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참새가 처마 끝에서 지저귄다. 무뚝뚝한 하인 놈이 농문을 열고 자리를 꺼내주어서, 나는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노라면 만단시름을 어찌 이루 헤아리겠는가?”

국형이라는 관리가 말하기를,

“그대는 봉명사신의 고락을 잘 아는도다. 그러나 남아는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거늘 하필 외방이라?”

하였다.

이에 이수남이라는 관리가 곁에서 말을 거들었다.

“나는 집무시간을 마치면 벗들이 술을 마시며 노는 자리를 찾아간다. 얼굴이 예쁜 기생을 옆에 끼고 앉아 갓은 희롱을 하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나와 기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간다. 비록 이부자리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옷을 벗고 함께 누우면 그 즐거움을 어찌 이루 형용하라. 날마다 이와 같이 하여 사람을 바꾼다. 만약 불가의 말대로 한다면 내세에는 말 기르는 곳의 수컷 말이 되어서 수십 필의 암말을 거느리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원이다.” 하였다.

이상의 일화처럼, 옛 관리들은 지방에 순시 차 나갔을 때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관리들이 지방 나들이를 하면서 기생들과 어울리고 동침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떤 관리들은 지방에 순시 차 나가서 기생편력을 일기형식으로 자신의 문집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경우도 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甌藁)’에도 기생 관련 이야기가 기록되어 전한다.

허균은 1601년에 세곡을 점검하는 전운판관(轉運判官)에 제수되어 서해안 지역을 순시한 적이 있었다. 이때의 일들을 ‘조관기행(漕官紀行)’이라는 제목의 일기형식으로 남겼는데, 그중에는 홍주동헌에 와서 머물렀던 기록이 전한다. 한여름인 7월 17일의 기록이다.

“홍주에 이르러 동상(東廂, 관아 동쪽에 있는 방)에서 잠깐 쉬는데 벌목관(伐木官) 박경현이 아현에 와서 아전을 보내어 어느 방에 묵을 것인지를 물었다. 나는 그가 동상에 들어오려는 것을 알고는 따지지 않고 지름길로 바로 아현에 이르니, 박경현과 목사 우복룡이 벌써 연회를 시작하고 소리하는 기녀들이 앞에 가득하였다. 나는 취중에,

“목사는 내 형님과 같으시니 아현에서 며칠 머물렀으면 하는데 이곳으로 옮겨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하니, 목사가 쾌히 승낙하였다.

저녁에 박경현은 동상으로 옮겨갔다. 밤에 박의 방에 들어가야 할 기녀가 내가 있는 곳으로 잘못 들어왔으므로 쫓아 보내고 우무머리 기녀에게 곤장 수십 대를 내렸다.

이외에도 석 달 정도에 걸쳐서 보령과 부안과 법성포와 광주 등을 순시하며 기생들과 어울렸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 어디에도 숨김이 없고 기생들과의 어울림에 대하여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황도령은 이처럼 동료나 선임 관리들이 지방 나들이에서 겪은 기생편력을 주고받을 때마다, 만향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황도령은 만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황도령의 마음을 어지럽게 휘저었을 것이라.

첫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만향을 잊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다. 대부분 사대부관리들의 기생관은 한때 외로움을 달래주던 연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황도령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만향을 한때의 연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만향에게 소식 한번 전하지 않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만향이 자기를 기다리며 수절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기생들이 파견 나온 관리들에게 몸을 맡기고 애교를 부려도, 만향은 황도령 만을 생각하며 수절하고 있을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황도령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서 빨리 만향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함흥으로 가서 만향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가정에 매인 몸이라서 만향을 만나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또한 황도령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 만향을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만향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덜컥 병을 얻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한다.

황도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벼슬살이를 오래하지 못했다. 황도령이 벼슬을 했던 기간은 3년 남짓한 짧은 세월이다. 황도령은 더 이상 벼슬을 하지 못하고 낙향했다.

황도령이 낙향한 표면적인 이유는 1716년 11월에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벼슬까지 사임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아마도 황도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황도령의 병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데도 자꾸만 야위어가고 힘이 없었다. 몸에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왔지만 차도가 없었다. 집안에서는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갔다.

때마침 모친상과 겹치며 벼슬을 사임하고 낙향한 것이 아닐까. 고향에서 어머니 산소도 지키고 건강도 회복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황도령은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황도령은 저승으로 갈 때까지 첫사랑 만향을 가슴속에 깊이깊이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묘살이

김씨는 만향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몇 번을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함흥에서 황도령과 만향이 맺은 인연은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만향은 그때 맺은 인연을 헌신짝 버리듯 배신하지 않았다. 10년도 더 넘는 세월동안 목숨처럼 정절을 지켜왔던 것이다. 기생의 몸이지만 사대부집 여인들 못지않은 정절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만향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황도령을 찾아갔던 것이다. 한양에서 헛걸음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이곳 원천 마을까지 찾아왔다는 말에

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만향이 한양에서 황도령의 낙향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짐작이 갔다. 한양에서 또다시 수백리 길을 물어 물어 원천마을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여자 몸으로서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험난한 여정이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와보지도 않은 낯선 길을 찾아왔다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김씨는 입이 딱 벌어져 다물 수가 없었다.

만향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함흥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또다시 이곳까지 찾아오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이고 먹는 것도 형편 없었을 것이다. 몇 달 동안을 헤매고 다니며 온몸은 말이 아닐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래도 만향을 버티게 해준 것은 황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팠던 황도령의 모습은 외롭게 누워있는 무덤뿐이었던 것이다.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낭군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이상이었을 것이다.

만향은 비틀비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황도령 산소 앞으로 올라갔다. 산소 앞에 픽 쓰러지며 온몸으로 무덤을 감싸 안았다. 어깨를 들먹거리며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련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어도 살아서 만날 수 있었을 걸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도련님만 원망했었지요. 흑흑…….”

만향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주변 초목들도 안타까움에 몸을 흔들며 함께 울어주는 듯했다.

만향은 황도령 산소 옆에서 떠날 생각을 안했다.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 같았다. 김씨가 건강을 걱정하며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제가 도련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시묘살이 뿐입니다. 제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도련님의 산소를 지킬 것입니다.”

김씨는 만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만향의 시묘살이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김씨는 황씨 집안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다. 황씨 집안은 누대로 권세를 누려오며 원천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가문였다. 양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황씨 집안에서, 천한 기생의 시묘살이를 그냥 놓아둘 리 없었다. 아마도 성하지 못한 몸으로 쫓겨날 확률이 십중팔구일 것 같았다.

김씨는 만향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다.

“황도령은 자네를 버린 사람 아닌가? 죽은 사람이 자네를 돌봐 줄 리도 없지 않은가? 차라리 이제라도 살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구먼.”

그러나 만향은 요지부동이었다.

“도련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니요?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다. 도련님께서 살아생전에 저를 찾지 못하셨던 것은, 반상구별이 철저한 이 세상 탓일 뿐입니다. 아마도 도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것입니다. 천한 기생이 지체 높으신 양반나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련님 산소 앞에서 생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씨는 만향의 굳은 결심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왔다. 저토록 굳은 절개를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만향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김씨는 황씨 집안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황씨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다네. 양반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인데, 자네가 하는 일을 보고만 있겠는가?”

김씨는 황씨 집안의 권세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김씨의 말을 전해들은 만향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듯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씨는 참으로 감탄만 할 뿐이었다. 저토록 가냘프고 아름다운 여인의 어디에서 그런 강철 같은 마음이 우러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마을 사람

만향의 소문은 원천리 마을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어디 원천 마을뿐이겠는가. 흥동면의 이웃 마을 여기저기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문이란,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재미를 한껏 보태면서 사실 이상으로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기생이라는 말에 우선 귀가 솔깃했다. 너도나도 대단한 구경거리를 만난 것처럼 황도령 산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허, 참말로 인물이 아깝네, 그려.”

만향을 처음 보는 사람들마다 첫마디가 인물얘기였다. 이런 시골 동네에 저렇게 예쁜 여인이 찾아온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황도령은 죽어서도 호강하는구먼. 저렇게 예쁜 여인이 산소를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양반으로 태어나고 볼 일이구먼.”

“맞는 말이지. 저렇게 예쁜 기생을 놓아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인지라,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입방아들을 찢어댔다. 농담과 진담을 반반씩 섞어서 황도령이 부럽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황도령을 나무라기도 했다.

“기생을 옆에 끼고 단물을 빨아먹을 때는 언제고, 저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는 언제가? 세상에 몫쓸 것이 양반들이라니

까…….”

만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반의 의리 없는 행태를 비웃기도 했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황씨 집안이였다.

만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쌓였다. 권세를 활용하면 금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까짓 기생 한명을 얼마든지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절하며 고생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기생을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주변 눈치가 보였다.

황씨 집안에서는 사람들을 시켜 만향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 찼는 말들이 고스란히 집안에 전해졌다. 양반 체면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낮부끄럽고 기가 찰 일이었다. 만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저런 상의로 분주했다.

“그까짓 근본도 모르는 천한 기생 꼬락서니를 멸똥멸똥 보고만 있던 말인가? 오늘밤이라도 당장 떠메어다 서해 바다에 던져 넣은들 누가 알겠는가? 내가 앞장설 것이니, 시간 끌 것도 없이 당장 없애버립시다.”

성미 팔팔한 집안사람이 핏대를 세우며 떠들어댔다. 그러자 침착하고 사리판단 깊은 집안사람이 가로막고 나섰다.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일이 아닐세. 그래도 우리집안에 관련된 일인데,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더 큰 망신을 사게 될 것이야. 우선 대화를 해보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 바람에 좌중은 잠시 잠잠해졌다.

“기생들이야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성의를 봐서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돈을 쥐어주고 동네에서 내보냅시다.”

누군가 절충하는 선으로 의견을 내었다. 모두가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동의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돈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황도령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물질로 보상해 주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되었다.

이런 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았다. 더구나 양반체면에 기생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마을에 말주변 있고 수완 좋은 사람을 뽑아서 만향에게 보냈다.

황씨 집안으로부터 협상 임무를 부여받은 마을사람이 만향을 찾아갔다.

마을사람은 황도령 산소 앞에 앉아있는 만향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감탄했다. 몸치장을 하지 않았어도 첫눈에 절세미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다소곳한 자태가 한 마리 학이 앉아있는 듯 우아했다.

‘허허, 이 세상 어떤 남자라도 한 눈에 반할만 하겠구먼.’

마을사람은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만향의 행동만 유심히 살펴보았다. 만향의 동태를 멀찍이에서 한참동안 살펴보다가 슬금 슬금 앞으로 걸어갔다.

“허흠, 허흠 ……”

만향의 귀에 들리도록 두세 번 헛기침을 했다. 만향은 인기척 소리에 몸을 사리며 긴장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옷매무새를 가

다듬으며 다소곳이 허리 숙여서 예의를 갖췄다.

‘저 몸짓 어디를 보더라도 사대부집 여인과 다를 바 없구먼. 누가 저런 여인을 기생이라고 알볼 수 있을까?’

마을사람은 이곳에 올 때까지 기생이라고 알본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만향을 살펴보며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었다. 만향의 행동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있었다.

“자네가 함흥에서 왔다는 만향인가?”

마을사람은 한껏 목소리를 점잖게 하여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함흥에서 온 기생 만향이라고 하옵니다.”

만향의 몸짓과 목소리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누가 보더라도 예의범절을 제대로 배운 행동이었다.

“자네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네. 황도령과 첫정을 맺은 후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절을 지켜왔다고 들었네. 더구나 이미 저승으로 떠난사람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니,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자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마다 감동하고 있다네.”

마을사람은 만향을 최대한 추켜세웠다. 우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렇더라도 마을사람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있었다. 만향을 직접 마주하며 대단한 정절이라는 것을 느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사오나,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낯모르는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니 더욱 부끄럽사옵니다. 천한기생으로서 인자하신 황도령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만분의 일이나마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 뿐
이옵니다. 지체 높으신 집안에 누를 끼치고 있어, 큰 죄인이 된
심정이옵니다.”

만향은 더욱 몸을 낮추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만향의 빈틈없는
행동거지를 보며 마을사람도 더욱 조심스럽게 만향을 상대했다.



“허허, 죄인이라니 무슨 당치않은 말인가. 황도령으로 인해 생긴 일이며, 황도령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도령 집안에서는 자네를 어떻게든 보살펴주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다네.”

만향은 마을사람을 마주하며 극도의 경계심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고 놀라며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만향의 얼굴에서 잠깐 경련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천한 기생이 홀륭하신 집안의 체면에 먹칠한다는 추궁을 각오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뜻밖에도 생각하지 못한 과분한 말씀이오라 뻗속 깊이 감동할 뿐이옵니다.”

만향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배어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을사람은 연민의 정을 깊이 느꼈다.

“자네의 고귀하고 굳은 정절을 하늘도 인정할 것이네.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이 좀 컸겠는가? 이제 황도령이 저승으로 떠난 마당에 죽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무엇 하겠는가? 이제는 고생을 접고 좀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권하고 싶네. 자네가 이처럼 고생하는 모습을 저승에서 바라보는 황도령도 몹시 마음 아플 것이네.”

마을사람은 진심으로 만향을 위로했다. 만향에게 하는 말은 모두가 진심이었다. 만향이 시묘살이를 끝내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르신께서 해주시는 말씀만 들어도,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고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듯하옵니다. 저를 위해 진심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더욱더 감사하옵니다.”

만향도 마을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긴장했던 경계심이 사르르 녹아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펄펄 쏟아졌다.

“황도령님께서 함흥을 떠나신 후로 이처럼 따스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높을 뿐입니다. 저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향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했다. 마을사람이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어허, 이거 왜 이러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네의 큰절을 받는단 말인가?”

마을사람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만향의 큰절을 받았다.

마을사람은 만향을 상대하며 점점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만향과 협상을 잘 마무리하여 마을에서 내쫓겠다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만향의 큰절을 받고 나서는 아예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말았다.

더욱이 만향에게 돈을 앞세워 협상하겠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향의 진심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앞세우는 일은, 오히려 황씨 집안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을사람은 만향과 헤어져 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이제는 어떻게든 황씨집안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검은 그림자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괴롭히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만향은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불량한 사람들의 마수를 피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적에는 겁탈을 간신히 면하기도 했다. 남장한 만향이 여자라는 것을 눈치 챈 마을 불량배들이, 이튿날 으스스한 산길에서 길목을 가로막았다.

“이보시오, 젊은이. 잠깐 좀 봅시다.”

험상궂게 생긴 불량배 서넛이 만향을 불러 세웠다. 만향이 긴장하며 불량배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지요?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만향이 몸을 잔뜩 움츠리며 대꾸했다.

“남의 동네를 지나가며 인사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 이를테면 통행세 같은 것 말일세.”

아마도 마을 주변에 사는 불량배들인 것 같았다. 다짜고짜 통행세를 내라고 시비를 걸어왔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통행세를 드릴만한 돈이 없습니다.”

만향이 겁에 질려 대답했다.

“그래예? 그렇다면 몸으로라도 때우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동네 불량배들이 우르르 달려들 기세였다.

“왜들 이러시오?”

만향은 항상 몸에 두 가지를 품고 다녔다.

한 가지는 황도령의 가족신발이었다. 황도령과의 사랑을 상징하는 가족신발은 언제나 만향을 지켜주고 있는듯하여 큰 힘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은장도였다. 황도령을 찾아가는 도중에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 위험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만났을 경우에는 은장도로 자결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다.

만향은 긴장하며 불량배들을 물리칠 방도를 생각했다. 처음부터 은장도를 꺼내들고 싶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불량배들을 설득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다.

“나는 지금 급한 가정사로 먼 길을 가는 중입니다. 제발 그냥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보인줄 아는가? 남장하고 길 떠나는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지 않는가?”

불량배들은 만향의 사정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만향 쪽으로 다가왔다.

만향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섰다. 몸으로 때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만향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강제로 겁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내 몸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의 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도 끝장인줄 알아라!”

만향은 뒷걸음질 치며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만향의 앙칼진 목소리가 산 고개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며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만향은 은장도를 허공에 대고 휘둘렀다. 만향의 칼 다루는 솜씨는 보통 실력을 넘어서는 경지였다. 어릴 적부터 검무를 추며 익힌 실력이었다. 비록 검무를 추기 위해 배운 솜씨지만, 이리저리 칼 휘두르는 솜씨는 진짜 검객 못지않았다.

만향이 휘두르는 은장도는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은장도 칼끝에 햇빛이 반사되어 흩어지며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다.

만향은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고 불량배들을 노려보았다. 은장도를 목에 겨누고 서있는 만향의 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불량배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만향의 은장도 휘두르는 솜씨에 일격을 당한 꼴이 되었다. 선불리 덤벼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앞으로 다가설지 뒤로 물러설지 판단을 못하고 머뭇머뭇 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하면 당신들은 살인자로 몰릴 것이야!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 두고두고 당신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야!”

만향의 필사적인 태도에 잠깐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불량배들은 슬금슬금 뒤통무니를 빼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만향은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민가 처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며 잠을 청하기도 했고 노숙을 하기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황도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잠도 줄이고 끼니도 굶으며 달려왔다.

만향은 이처럼 고생고생하며 황도령을 찾아온 것이다. 비록 황도령을 살아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산소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시묘살이를 하고 있었다.

만향은 주변에서 자신을 그대로만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세상사는 만향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칠혹 같은 밤이었다.

눈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만향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황도령의 산소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만향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림자 하나가 접근하며 뒤쪽으로 손짓 했다.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쥔쥔하게 만향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그림자 하나는 만향의 입을 틀어막고 또 하나는 만향의 두 손을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뺨뺨 묶었다.

“으윽, 으윽…….”

만향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속수무책이었다. 몸에 은장도를 품고 있었지만 사용할 틈이 없었다. 온몸을 뒤흔들며 발버둥만 쳤다.

검은 그림자들은 만향을 큰 자루에 뒤집어 씌웠다. 그 동작이 민첩하고 익숙했다. 만향은 꿈쩍없이 자루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검은 그림자들은 만향을 어깨에 들쳐 메고 산소를 빠져나갔다. 산소를 내려서서 언덕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칠혹 같은 밤을 밝히는 불빛이 검은 그림자 앞을 흰하게 비쳐왔다. 그림자들은 앞을 막는 불빛에 깜짝 놀라서 멈칫했다.

“어흥! 어흥!”

밤하늘을 울리는 포효가 두 번 울렸다. 밤 깊은 시간에 마을 전체



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포효였다.

깊은 잠에 빠져든 마을사람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 울음소리 아닌가?”

그 시절에는 호랑이가 흔하던 때였다.

마을사람들은 누구네 소나 돼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무서워서 밖으로 나와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온 몸을 덜덜 떨며 이불속에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

이튿날 날이 밝으며 마을사람들이 한두 명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자기 집 외양간을 살펴보며 안도했다.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소가 잡혀가지 않았으니 마음이 놓였다.

혹시 누구네 소가 잡혀갔는지 이웃집을 오고갔다. 아무도 소나 돼지가 잡혀간 집이 없었다.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황도령 산소에 올라가 보세.”

마을사람들이 우르르 황도령 산소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산소 가까이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다. 커다란 자루 속에 담겨있는 물체를 발견한 것이다.

“저게 뭐지?”

마을사람들은 급히 달려가서 자루를 벗겨보았다.

“아니? 이걸 만항 아닌가?”

만항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이 묶인 채, 죽은 듯 움직이지도 못했다. 달막달막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급하게 만향을 풀어주었다. 집으로 데리고 내려와 안정을 시키며 기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이보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을사람들이 급히 사연을 물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던 기억 밖에는 없습니다.”

“누군가 자네를 보쌘해서 납치해가려던 것이 분명하네. 그런데 왜 자네를 자루 속에 넣어놓은 채 내동댕이치고 달아났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마을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괴한들에게 끌려가는 도중에 눈앞에서 흰하게 불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바로 앞에서 두 번 들려왔습니다.”

“오호라, 어제 밤에 들렸던 호랑이 울음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구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나?”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기절하여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구먼!”

마을사람들은 괴한들에게 끌려가던 만향이 호랑이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허허, 참말로……. 이건 예삿일이 아닐세. 호랑이가 구해줄 정도라면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주는 것 아닌가! 기적 같은 일일세!”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감탄했다. 만향의 시묘살이를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마을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또 다른 궁금증이 몰려왔다.

“도대체 누가 만향을 납치하려 했을까?”

“괴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을사람들은 며칠 동안 난해한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이었다. 마을에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을 한명한명 쫓아보며 의심해 보았다.

수수께끼의 답은 며칠 만에 자연스럽게 풀렸다.

옆 동네에 불량기 많은 두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소식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들은 며칠째 행방이 묘연했다. 가족들과 마을에서 아무리 수소문하여 찾아보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넘어가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이들이 왜 만향을 납치하려 했는지 이런저런 추측을 했다. 어느 홀아비가 보쌈해 가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둥, 만향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고 색주가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둥, 밀도 끝도 없는 추측들만 무성했다.

황도령을 따라간 만향

만향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이야기는, 또 다른 소문을 수도 없이 생산해 내었다.

만향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가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다. 어느새 만향이 함흥에서 겪은 일들까지 마을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모든 소식들이 오직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 시절이었다. 만향의 함흥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타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았다.

“만향이 얼마나 효녀인지, 함흥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더군.”

“마을에 큰 불이 났었는데, 만향의 집만 비껴가고 모두 불에 탔다는군.”

“만향이 관리들의 수청요구를 피해서 마을 앞 우물에 투신자살을 시도했었다는군. 그런데 만향이 우물에 빠지는 순간, 우물물이 모두 말랐다는 거야. 그 바람에 만향이 멀쩡하게 구출되었다는군.”

“만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며 못되게 굴던 관리는 병어리가 되었다는군.”

만향과 관련된 고향 함흥의 이야기들은, 진실도 있었지만 진실 이상으로 과장된 것도 상당수였다.

이곳 원천리 마을에서 만향은 이제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효녀와 열녀로서 하늘이 감동하여 보살펴주는 여인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었던 것이다.

만향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얘기들을 알 리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도령의 무덤만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보게,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도 좀 먹어가며 앉아있어야지.”

만향이 이곳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김씨는 여전히 고마운 후원자였다. 아침저녁으로 만향을 찾아와 보살펴주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배려했다. 만향이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초막도 지어주었다.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처럼 파스한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아저씨 내외의 보살핌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향은 김씨 내외가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 하루하루 보살핌을 받으며 고마운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김씨 내외는 항상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울 뿐이지.”

“황도령도 참으로 무정한 사람이지.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못 기다리고 일찍 저세상으로 달아날 것이 뭐람?”

“쫓쫓, 저걸 어찌나. 죽기를 작정한 사람 같구먼.”

김씨 내외는 만향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에 한마디씩 주고받곤

했다.

정말로 만향은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오직 물로만 목숨을 연명 했다. 황도령의 산소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만향이 황도령을 찾아온 지가 석 달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만향이 처음 이곳에 올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어느새 단풍이 들고 선득선득 추위가 찾아왔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 들기에 딱 좋은 계절이었다.

만향은 이미 수백리 길을 걸어온 노독으로 환자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므로 온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이런 날씨에 몸이 제대로 견뎌낼지 위태위태 했다.

김씨 내외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가을 깊은 아침결에 만향을 찾아간 김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향이 황도령의 산소를 끌어안고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밤새 떨어진 낙엽 몇 장이 만향의 등에 이불처럼 얹혀있었다.

“만향, 만향, 정신 좀 차려 봐요!”

만향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었다.

“하이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숨을 거두다니…….”

김씨는 만향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엉엉 울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씨 아내도 만향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마을사람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황도령 산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잠자는 듯 누워있는 만향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다.

“저승에서라도 황도령과 만났으면 좋으련만…….”

마을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을 저승에서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을사람들은 만향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자고 입을 모았다. 김씨 집으로 만향의 주검을 옮겼다. 김씨가 상주 역할을 맡고 마을사람들은 가족이 되어 장례절차를 밟았다.

장례절차 중에는 좋은 자리에 묘를 잡는 일이 중요했다. 마을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데나 묻어주기에는 사연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만향의 묘를 어디에 써야할지 설왕설래 했다.

“황도령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누군가 황도령 옆에 묘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일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좋아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씨 집안의 허락이 떨어져야 할 일이었다.

“내가 나서보겠네.”

황씨 집안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 만향과 협상하러 왔던 마을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만향과 만났던 일을 생각하며 황씨 집안으로 찾아갔다.

“만향은 천한 기생의 신분이지만 행실은 양반사대부 집안의 여인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황도령 옆에 묻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 거기에도 만향을 직접 보고 느낀 바대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황씨 집안에서도 마을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

왔다. 결국 황씨 집안에서도 승낙이 떨어졌다.

만향은 삼일장을 치르고 동네 상여에 실려 김씨 댁을 나섰다.
상여꾼들의 구성진 향두가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요
오호, 오하, 오호, 오하
북망산천 들어가니 까막까치 벼를 삼고
오호, 오하, 오호, 오하
꽃이 되어 만발하고 잎이 되어 흩어졌소
오호, 오하, 오호, 오하
해는 졌다 다시 뜨고 꽃은 졌다 피건만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인생한번 죽어지면 이 세상에 하직이요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어느 친구 많다 하나 어느 친구 대신 가나
오호, 오하, 오호, 오하
나의 인생 썩어지면 그것이 그만이라
오호, 오하, 오호, 오하

상여꾼들의 향두가는 선창과 후창이 교대로 이어졌다. 만향이
잠들 묘자리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큰 소리를 내어 불렀다. 만향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을사람들의 마지막 정성
이었다.

만향은 이렇게 황도령 옆에 나란히 묻혔다.

5장

또다시 이별

5장 또다시 이별

무지개말랭이

만향은 저승에서나마 황도령 옆에서 영원히 잠들 줄 알았다. 하지만 만향에게는 이런 행복마저도 길게 허락되지 않았다.

만향이 황도령 옆에 나란히 눕고 나서 삼십년 쯤 흐른 후였다. 만향은 또다시 사랑하는 황도령과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아마도 1752년 12월 말 경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때가 황도령의 부인인 안동 권씨가 사망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황도령의 사망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아들도 이미 40세를 넘긴 나이였다.

12월 어느날 황도령의 아들이 상복을 입고 원천리 마을에 찾아왔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산소를 이장하여 어머님과 합장을 하려고 합니다.”

황도령 아들은 집안어른을 찾아가 아버지의 산소 이장을 상의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의 묘를 합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아들이 부모의 산소를 합장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황도령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만향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했다.

“아버님 옆에 있는 만향의 묘는 어떻게 할 셈인가?”

이곳 황씨 집안에서는 이제 만향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비록 신분은 미천했지만, 그 정절이 높아서 황도령 옆에 쌍분으로 함께 누워있지 않은가?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비록 족보에 올라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살아생전에 아버님과 맺었던 연분을 목숨처럼 지켰던 분일세.”

이곳 황씨 집안에서는 만향의 묘도 함께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황도령의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생으로 아버님과 잠깐 인연을 맺었을 뿐인데…….”

아무리 집안 어른이라도 더 이상 만향의 얘기를 꺼낼 처지가 아니었다. 직계 자손이 하는 일을 이왕저왕 간섭할 처지가 아니었다.

만향은 또다시 사랑하는 황도령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살아서는 함흥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했고, 죽어서는 원천리 마을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다.

결국 황도령은 혼자서 원천리 마을을 떠나갔다. 황도령의 유골을 실은 상여는 언덕배기 아래로 내려서서 평평한 길을 몇 발짝 더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황도령의 상여행렬을 쳐다보던 마을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어허, 저것 좀 봐! 멸절한 날씨에 웬 무지개가…….”

계절은 한겨울이었지만 날씨는 쾌청했다. 한겨울답지 않게 햇볕도 따스했다. 그런데 한겨울 한낮에 난데없는 무지개가 언덕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나이 든 노인들도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더구나 무지개가 시작된 곳은 바로 만향의 무덤이었다. 만향의 무덤에서 뻗쳐오른 무지개는 황도령의 유골이 실려 가는 상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난향의 영혼이 황도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저토록 애절한 사랑을 억지로 떼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이별장면을 보는 듯했다.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만향의 간절한 마음이 무지개로 변하여 따라가고 있다고 믿었다.

만향이 죽어서 황도령과 두 번 째 이별을 한 후,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만향의 이야기는 술한 세월이 흐르며 원천리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다.

만향이 홀로 누워있는 언덕 이름은 ‘무지개말랭이’가 되었다. 만향의 영혼이 황도령의 상여를 따라가며 무지개로 피어오르던 낮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또한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그 후에 황도령의 직계 후손들은 대가 끊겼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말한다.



“만향의 영혼이 황도령 자손의 서운한 처사에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옛말에 ‘일부함원(一婦含怨)이면 오월비상(五月飛霜)’ 이라고 했던가.

여인이 원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내린다는 뜻이다. 아무리 가녀린 여인이라도 증오와 원한이 마음에 사무치면 언젠가는 큰 화를 끼칠 수 있다는 옛말이다.

죽어서라도 황도령 옆에 함께 있고 싶었던 만향의 간절한 소망을
자손이 외면했으니, 그 속상함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로 만향은 황도령 후손들의 대를 끊는 것으로 보복한 것인지
도 모를 일이다.

사랑의 수호신이 된 만향

만향은 원천리 마을에 홀로 남아서 300여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
왔다.

하지만 만향은 홀로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시골마다 청춘남녀들이 북적이던 시절에 만향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랑을 상징하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부터 인가 만향의 산소 앞에서 기도하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말들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청춘 남
녀들이 만향을 찾아오곤 했다.

“저희들이 결혼하여 평생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춘남녀들은 만향의 산소 앞에서 기도하며 사랑을 맹세하곤
했다.

만향 앞에서 약속한 사랑을 배신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소문도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배경에는 그럴듯한 사연이 있었다.

만향의 묘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배신한 남자가 있었다. 버림받은 처녀는 속상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버림받은 처녀는 만향의 묘 앞에 찾아와서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남자를 벌해달라고 빌었다. 한때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된 것이다.

정말로 배신한 남자는 벌을 받았다. 신부 댁으로 말을 타고 장가 가던 길에 말에서 떨어지며 큰 상처를 입었다. 그 바람에 남자는 평생 동안 불구로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만향의 묘 앞에서 평생 변치 않겠다는 사랑을 약속하고 배신한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의 삼대 독자였다.

이 남자는 웬일인지 결혼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결국 이 남자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얻었다. 두 번째 부인의 몸에서도 자식이 없었다.

나중에는 씨받이를 들여놓고 자식 낳기를 기다렸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이 집안은 대가 끊기는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만향 앞에서 약속한 사랑을 배신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만향은, 저승에서도 사랑의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반대로 만향의 묘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하여 잘사는 부부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끝까지 사랑의 약속을 잘 지킨 부부들은 아들딸을 무 뽕듯이 쑥쑥 잘 낳아서 길렀다.

어떤 집안에서는 큰아들의 취직시험 전날 밤에, 만향이 꿈에 나타났다다고 한다. 부부의 꿈속에서 만향이 나타나며 아주 밝은 웃음을 짓더라는 것이다. 부부는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꿈에 만향이 활짝 웃으며 나타났지 뭐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인에게 꿈 얘기를 전했다.

“어머나!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참으로 신기한 꿈이네요!”

부부는 시험 보러 떠난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 꿈은 정말로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며칠 후에 아들의 합격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이제 만향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들과 그 자식들까지 지켜주는 마을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함흥기생 만향은 세월이 흐르면서 원천리 마을의 전설이 된 것이다.

후인의 기도

세월이 흘러 흘러서 강산은 수십 번 바뀌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도 천지차이로 변했다.

세월과 함께 만향의 이름도 잊혀졌다. 만향의 묘 주변에는 해마다 개망초 꽃만 활짝 피었다 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었다. 이 해에도 만향의 묘 주변에는 눈꽃처럼 개망초 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한 후인이 만향의 묘 앞에 찾아왔다.

“열녀 만향의 묘”

라고 새긴 비석이 만향의 묘 앞을 지키고 있었다.

후인은 만향의 비석을 뚫어져라 살피며 비문을 열심히 읽어 내려갔다.

비문을 모두 읽고 나서 사진도 찰칵 찍었다. 그리고는 만향의 묘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서있었다.

후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오! 만향!

당신이 이곳에 묻힌 지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쇠털 같은 술한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한 후인은 당신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깊은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간간히 훑날리는 개망초 꽃잎처럼, 무지개 언덕에 흩어진 당신의 애끓는 사랑이야기를 가슴 가득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그 시절이, 여인들의 절개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세상이긴 했지만, 당신의 너무도 안타깝고 고귀했던 행적은, 듣는 이의 콧등을 찡하게 울려줍니다.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야, 가문의 서릿발 같은 체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기생의 몸이었던 당신이야 눈 질끈 감고 팔

자를 고쳤다 한들,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한 때의 언약쯤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며 단 꿀을 빨아대는 벌 나비처럼, 다른 양반
세도가들의 품안에 안겼다 한들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한양 가서 소식 없는 황도령을 기다리며 못 사내들의 유혹을 뿌
리치던 당신의 모습이, 기다림 끝에 지친 절망으로 자살을 기도하
던 당신의 모습이, 천리 길 마다 앓고 한양 땅으로 홍주 땅으로 헤
매고 다녔을 당신의 모습이, 고생고생 끝에 찾아온 이곳 이 자리에
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황도령의 무덤을 감싸 안고 몸부림 쳤을
당신의 모습이, 직접 보지 않았어도 눈에 훤히 다가옵니다.

비록 죽어서일망정 황도령 옆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는 얼마나 행
복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의 세월, 지체 높은 가문의 후손
은 황도령을 더 좋은 유택으로 모셔갔고, 나란히 누워있던 당신은
또다시 이렇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이별은 싫었습니까? 그래서 혼자 떠나는 황도
령의 상여 뒤를 당신은 무지개가 되어 따라갔습니까?

죽어서도 다 못한 당신의 슬픈 사랑애기가 파편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에, 한 후인은 이렇게 찾아와서 조심조심 주워 담고 있
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나마 황도령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기
를 삼가 빌어봅니다.

후기(後記)

후기(後記)

황 흠은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에 ‘열녀(烈女) 난향(蘭香)의 묘’가 있다. 마을에서 ‘무지개말랭이’라고 부르는 야트막한 산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시대 기녀의 묘이다.

난향의 묘 앞에 서있는 비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열녀 난향은 평양기생으로 황규하(黃奎河)의 애인이었다. 황규하는 1678년에 태어나서 1718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1713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홍문관응교, 사헌부집의, 춘추관수찬관 등을 역임하였다. 1716년에 모친상을 당하여 홍주로 귀향하였고 1718년에 사망하였다.

황규하는 아버지 황 흠이 평양감사로 재직할 당시에 책방도령으로 따라갔었다. 난향은 규하가 평양에 머물면서 사귀던 기생이었다. 아버지 황 흠이 다시 한양의 내직으로 등용되어 상경하게 되자, 규하와 난향은 작별하고 그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 관리들의 수청요구가 거세어지자, 난향은 자결을 결심하고 대동샘에 투신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마을사람들이 물을 걷기 위해 두레박질을 하는데 물이 퍼지지 않았다. 날이 밝은 후에 우물 속을 살펴보니 사람이 빠져있는데 물이 말라 있었다. 사람을 건져 올려 보았더니 난향이었고 상처도 없이 멀쩡했다.

난향을 건져올리자 말랐던 우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이후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다시는 관리들의 수청요구가 없었다. 그후 난향은 낭군의 소식을 기다리며 수년을 살아가다가 갖은 고생을 각오하고 한양으로 규하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규하는 이미 벼슬을 사임하고 이곳 홍주로 낙향한 후였다. 난향은 한양에서 다시 홍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백 리를 걸은 난향은 발이 부르튼고 유혈이 낭자하여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게 웬인인가.

난향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찾아온 규하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있었다. 난향은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규하의 묘 앞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시작하였다.

난향은 시묘살이 얼마 후에 규하의 묘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람들은 난향의 행동에 너무 감동하여 규하 옆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랐다. 비록 저승에서나마 낭군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며 쌍분으로 나란히 묘를 썼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규하의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갔고, 난향의 묘는 홀로 남게 되었다. 규하의 유골이 언덕 아래로 운구되어 갈 때, 난향의 묘에서 갑자기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상여를 뒤따라갔다.

사람들은 난향의 영혼이 무지개로 변하여 규하를 따라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후 이곳 언덕배기는 난향의 이야기와 함께 ‘무지개말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규하의 후손은 이후로 대가 끊겼다고 한다. 이곳에 홀로 남게 된 난향의 영혼이, 후손들의 야속한 행동에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난향의 묘는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해방 후부터 이곳 창원황씨 문중에서 매년 별초와 제향을 올리고 있다. 1993년에

는 후손들의 뜻을 모아 난향 묘 앞에 제단과 비를 세우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이상이 흥동면 원천리에 있는 ‘열녀 난향의 묘’에 대한 묘비의 기록이다. 이외에도 지역에 전해오는 기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 조금 이상한 내용이 발견된다.

황 흠이 평양감사로 있을 때 황규하가 책방도령으로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황 흠^(1639, 인조 17~1730, 영조6)은 평양감사를 역임한 기록이 없다. 황 흠의 여러 관직 기록 중에는 세 지역의 관찰사 기록이 있다. 전라도와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고, 1702년 4월 봄부터 1703년 가을까지는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황 흠이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했다면, 그 임지는 함경도 함흥이다.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하며 함흥에 머물렀으며, 황규하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 함흥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난향의 이야기가 문중에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함흥을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난향의 연고도 평양이 아니고 함흥이어야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해어화사에 기록 된, ‘함흥기생 만향’

민속학자 이능화(李能和: 1869~1943)가 1926년에 발간한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라는 책이 있다. 삼국유사·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의 각종 기록과 야사들을 근거로 하여, 신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역대로 이름 있는 기녀들에 관계되는 내용을 모아 놓은 책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대로 뛰어났던 기생들의 이름과 행적들을 모아놓았으므로, 기생사(妓生史)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 32장에는 기생을 특징별로 수록해놓은 내용이 있다. 역대로 이름 있는 기생들을, 절기(節妓)·의기(義妓)·효기(孝妓)·지기(智妓)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 장에는 절기(節妓)와 효기(孝妓)로 분류된, ‘함흥기생 만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함흥(咸興) 기생 만향(晩香)

윤정현(尹定鉉)이 쓴 『희조일사(熙朝逸史)』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 일찍이 함경감사가 되어서 임자년(壬子年) 봄에 감영 남문 밖의 화재 광경을 목격했었다. 불에 탄 집이 1천 호에 가까웠으나 오직 절부(節婦) 효녀(孝女)인 만향(晩香)의 집만은安然무사(安然無事)했다. 그리고는 그 주위의 집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서 마치 사나운 바람과 불길이 만향의 집을 피해간 듯한 감이 있었다.

만향은 이름이 비록 기적(妓籍)에 올랐고 나이 많았어도 오히려

정조를 지키고 그 부모를 효도로 섬겼다. 고(故) 승지(承旨) 황규하(黃奎河)가 함흥객사에 머물렀을 때에 비로소 천침(薦枕)하였다. 황공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 지아비를 고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홀로 있으면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자가 날로달로 꼬리를 물었다. 날이 오래가면 횡포를 면치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물이 마른 우물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기록해서 벽에 게시(揭示)한 것이 있는데, 그 대략이 이와 같았다. 몇 해 뒤 화재가 또 발생하였는데 주위의 집은 모두 탔어도 불길의 만향의 집에는 또한 미치지 않았다. 만향이 죽은 지 이미 1백여 년이 되었는데도 절효(節孝)에 대한 감응(感應)이 여러 번 나타났으니 또한 신비스러운 일이다.

병인(丙寅)(고종 3년) 9월 초하룻날 아침에 분계퇴수(粉溪退叟) 윤정현(尹定鉉)이 기록하다.

- (이능화(李能和) 저,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이재곤(李在崑) 옮김, 동문선(東文選), 1992. 426-427쪽.)

이상의 내용은, 함경감사를 역임한 윤정현이 기록한 것이다. 조선해어화사에는 윤정현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내용은 만향과 황규하가 실제로 살았던 시대보다 100여년 이상 흐른 후에 작성된 것이다. 윤정현이 함경감사 시절에 함흥기생 만향에 관해 전해 들었거나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을, 자신의 문집에 올려놓은 것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함흥기생 만향

기생 만향과 관련하여 또 다른 기록도 있다.

조선 시대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오는 기록이다.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 영조 때 전국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종합 정리한 책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책이므로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여지도서의 함경남도 함흥부 읍지(咸鏡南道咸興府邑誌) 열녀(烈女)편에, 기생 만향(晩香)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열녀 편에는 일반가정의 열녀 26 명과 기생열녀 3 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만향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생 만향(晩香)

수찬(修撰) 황규하(黃奎河)의 사랑을 받았다. 황규하가 죽자 만향은 천 리를 달려가 상례를 치르고 스스로 목을 매어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 (여지도서 함경도편, 전주대학교고전국역총서1
김우철 역주, 디자인하름), 2009, 212쪽.)

이상의 기록들은 황규하와 기녀 만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록만큼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기록들로 보아 황규하와 함흥기녀의 사랑이야기는 실제로 있

었던 일이라고 판단된다. 황규하라는 이름도 정확하고, 함흥 기녀 만향의 이름도 정확하다. 더욱이 기록들마다 기녀 만향이 황규하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황규하는 평양이 아니고 함흥에 머물렀으며, 그의 연인 역시 함흥에 살던 기녀였던 것이다. 더욱이 황규하가 사귀던 기녀의 이름은 ‘난향(蘭香)’이 아니고, ‘만향(晩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열녀 난향의 묘’라고 기록된 주인공의 이름은 ‘열녀 만향의 묘’라고 수정되어야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착오는 왜 생겨난 것일까. 아마도 문중에서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전에 의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난향과 만향의 발음이 비슷한 것도 착오의 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해어화사의 기록과 묘비 내용의 차이

조선해어화사에 기록된 만향의 기록은, 마치 전설을 읽는 듯한 신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집 주변에 두 번 씩이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마가 만향의 집을 비켜갔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신이한 현상이다. 또한 만향이 우물에 투신했는데 우물물이 말랐다는 것도 신이한 현상이다. 조선해어화사의 많은 기녀들 기록 중에서, 이처럼 신이한 현상이 나타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에 있는 묘비명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만향이 우물에 투신했는데, 우물물이 말랐다는 내용 등이 일치한다. 다만 조선해어화사에는 만향이 우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이후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홍동면 원천리에 소재한 묘비에는 만향의 이후 행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향은 자살 파동 이후에, 한양과 홍주로 황규하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한양과 홍주로 규하를 찾아왔지만, 규하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만향은 시묘살이를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마을사람들은 만향의 묘를 규하 옆에 쌍분으로 만들어주며, 영혼이라도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후손들에 의해 규하의 산소만 경기도 고양시 원당면 일리리로 이장되었다.

당시 규하의 유골이 운구되어갈 때에, 만향의 묘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따라갔다는 것도 전설처럼 신이하다. 이후 이곳은 무지개말랭이로 부르고 있다.

만향이 살아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천대를 받았고, 규하를 만난 이후에는 정절을 지키며 슬한 고난을 받았다. 죽은 후에도 규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오랫동안 외로운 세월을 지내왔다.

하지만 만향의 정절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창원황씨 후손들에 의해 정식 조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창원황씨 족보에는 만향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도, 이곳 홍성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만향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금 현재 홍성지역 창원황씨 문중에서는 만향의 정절을 높이 기리고 조상으로 생각하며 정성껏 산소를 관리하고 있다. 매년 제초 작업과 함께 시월 보름날에 합동으로 만향의 묘 앞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 비록 수백 년 후이기는 하지만, 만향은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여지도서의 기록에는 만향의 정절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정려를 세웠다고 한다. 이 내용은 조선시대 신뢰할 수 있는 책의 기록이므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지도서의 기록대로라면, 함흥 아니면 이곳 홍성 어딘가에 만향의 정려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정려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조선시대 정절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던 만향이라는 기생의 산소가 우리고장에 있고, 그녀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고장 홍성의 훌륭한 역사유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이능화,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이재곤(李在崑) 옮김, 동문선, 1992.
2. —, 『여지도서(輿地圖書)』 함경도편, 김우철 역주, 디자인흐름, 2009.
3. 유몽인, 『어우야담(於于野談)』, 이월영 · 시귀선 역주, 한국문학사, 2004.
4. 성 현, 『용재총화(慵齋叢話)』, 김남이 · 전지원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5.
5. 한재락, 『녹파잡기(綠波雜記)』, 이가원 · 허경진 역주, 김영사, 2007.
6. 허 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민족문화추진회 역주, 미문고, 1989.
7. —, 『춘향전』, 송성욱 역주, 민음사, 2015.
8. 나관중, 『삼국지』, 김홍신 편역, 아리샘, 2008.
9. —, 『홍동면지』, 홍동면지편찬위원회, 1994.
10.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2015.
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12. 심영구, 『기창시화 조선 기생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3.
13. 심재방, 『시인, 그들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선, 2007.
14. 권현정, 『세기를 넘나든 조선의 사랑』, 현문미디어, 2007.
15. 김영진, 『소설보다 재미있는 조선야사』, 로하스, 2010.
16.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2010.
17.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하)』, 사계절, 2011.
18.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상)』, 사계절, 2012.
19.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13.
20. 신웅순, 『연모지정』, 푸른사상, 2013.

21. 조광국, 『기녀스캔들 메이커』, 월인, 2014.
21. 신현규, 『기생이야기(일제시대의 대중스타)』, 살림, 2014.
23.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기생들』, 다산북스, 2014.
24. 김정현, 『삶과 상상력이 녹아 있는 우리동네』, 홍성문화원, 2010.

- 본문 내용 중에는 참고문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홍성의 전설이 된

함흥기생 만향



인쇄 / 2015년 12월

발행 / 2015년 12월

글 / 김정현

그림 / 전만성

발행처 / 홍성문화원(041-632-3613)

펴낸곳 / 대교출판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9번길 18(정동)

042-254-9966, 226-9966

042-255-5006

※ 이 책은 2015년 홍성역사인물 연구사업 지원금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